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지혜와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더욱 더 악하고, 교만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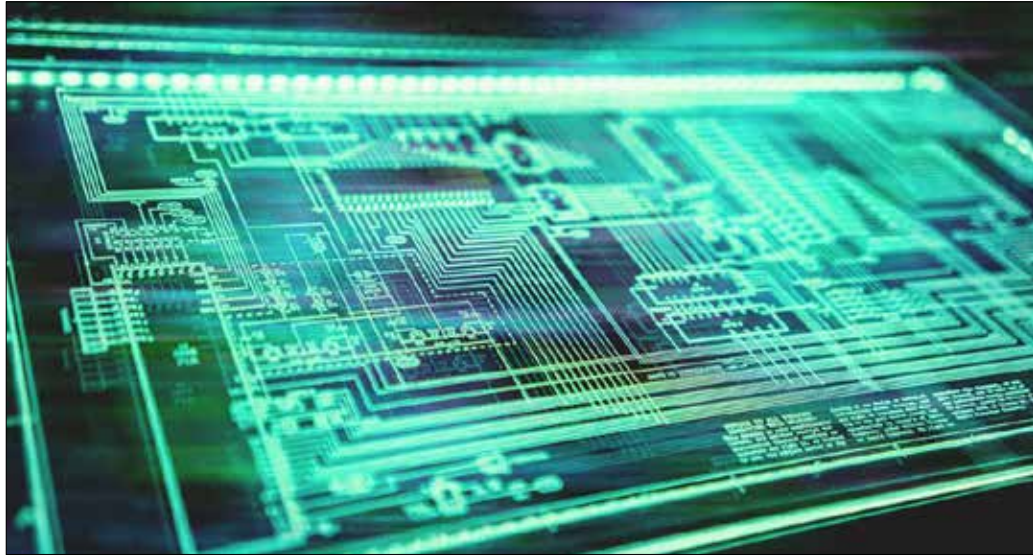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혈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욥기12장13-16절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AI는 결코 인간을 대체할 수 없으며 핵심은 목적과 정체성과 자율성으로 귀결된다
유력 미디어에 등장한 다음 헤드라인들이 모두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Time지는 "AI 군비 경쟁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게 바꿀 것인가?" 반면에 Yahoo Finance의 라울 팔(Raoul Pal) 또 Forbes지는 이렇게 물었다. "시: 앞으로 고용 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학교 과제물에서 전투기와 의료 수술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의 손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결코 두려움에 떨고 싶지 않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모든 로봇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모하거나 부주의하게 AI에 접근해서도 안 된다(잠 14:16).



개혁적 복음주의 교회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단체인 The Gospel Coalition(복음연합, TGC)은 첨단 컴퓨터와 AI 융합 분야의 제품 개발자 조엘 제이콥(Joel Jacob)과 자리를 함께했다. 그리고 AI가 무엇인지, AI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AI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하는 단순 코드를 만드는 대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간 두뇌를 복제할 창조해내는 시스템(creating system)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단어와 소리 및 모양을 배우는 아기의 방법에서 시작해서,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중 많은 부분이 환경 훈련을 기반으로 한 뇌의 뉴런 강화로 귀결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엄마" "아빠"라고 자꾸 말하면 아기는 그 소리를 복제하고 그 과정에서 뇌의 뉴런이 훈련되고 강화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학습'(learning)이라고 부른다.

아무런 정보가 들어가지 않은 뉴런을 재생성한 다음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기처럼 취급함으로써, 컴퓨터도 얼마든지 훈련시킬 수 있음이 밝혀졌다. 그 과정을 거쳐서 업계에서 "신경망"(neural net)이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가 탄생했다. 전기화학 반응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뇌보다 컴퓨터 회로 기관에서 움직이는 전기는 백배 이상 빠르다. 따라서 신경망은 지금까지 나온 그 무엇보다 인간 지능과 흡사한 동시에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AI는 무엇인가?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사람들은 혹시라도 컴퓨터가 인간과 구별할 수 없는 수준의 지능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이때는 거기에 관한 시도가 오로지 알고리즘(컴퓨터가 따르도록 정해 놓은 규칙 또는 규칙의 집합)을 통해서만 이뤄졌다.

2000년대 초반에 "딥 러닝"(deep learning)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도입되었다. 컴퓨터에 무엇을 하라고 지시

하나는 궁극적인 창조주 이시며 우리는 항상 그에게 복종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도 지금 뿔을 창조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인간보다 "더 낮게" 그리고 더 빨리 생각하는 능력을 지닌 무언가라는 사실이다.

그런 이유에서 OpenAI 조직(GPT 개발자들)이 처음 만들어졌다. 전제는 이것이었다. AI 기술에는 워낙 무서운 힘이 담겨있으니 한 개인이나 국가가 이 힘을 통제함으로써 오용하는 위험을 막겠다는 것이다.



TGC, 소셜 미디어가 아이들에게 나쁜 친구가 되고 있다

미국 청소년 1/3 이상이 특정 플랫폼에 "중독" 부모가 인터넷 액세스가 가능한 모든 장치에 부모 모니터링 앱을 설치해야

미국 공중보건국장 비백 머시는 어린이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잠재적 위험을 경고했다.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부적절한 콘텐츠가 소셜 미디어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과 과도한 사용에 대한 조사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SNS가 젊은이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은 수면 방해에서 자살 충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증진, 온라인 괴롭힘 및 아동 학대 방지 노력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온라인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심대의 약 95퍼센트와 8-12세 어린이의 40퍼센트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들은 종종 극단적이고 해로운 콘텐츠에 노출된다. SNS 플랫폼에서 하루에 3시간 이상 보내는 사람은 우울증과 불안 경험할 가능성이 두 배 더 높다. 또한 11-15세 소녀의 1/3 이상이 특정 플랫폼에 "중독"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

(9면으로 계속)



시론 민경엽 목사



푸른초장 차용호 목사



가독교 명저의초대 이윤석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월드쉐어USA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플레루 FleuRue 김성국 목사 신간 컬럼집
당신은 어떤 시간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시간에는 세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흘러가는 일상의 시간입니다. | 다윗이 목동으로 지내던 시간 카이로스: 일상의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시간입니다. |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시간 플레루: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된 시간
하나님은 크로노스로 살고 있던 우리에게 카이로스 찾아가셨습니다. 그 카이로스만 감사한데 플레루의 충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시고 또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크로노스를 지낸다고 하여도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플레루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완성되는 시간 플레루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사랑 가득한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문장마다 목사님의 호흡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보이기도 합니다.
류응렬 목사 |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Hisfinger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 구매문의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718) 886-4400 HISFINGER8386@GMAIL.COM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를..

(1면에서 계속)

따라서 이 기술은 모두가 다 동등하게 다음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말이 나중에는 "AI 기술은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하다. 따라서 무슨 내용을 공개할지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AI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적절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인간이 처음으로 다리를 만들었을 때만 해도 기술의 부족으로 많은 다리가 무너져 수많은 사람이 다쳤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실수로부터 배웠고, 이제는 튼튼한 다리를 건설하는 데 능숙해졌다. (물론 최근에도 무너지는 다리가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AI에 대한 첫 번째 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AI를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것임을 이미 알게 되었다. 그럼 앞으로 발생할 여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AI로부터 나오는 편향되거나 아예 잘못된 답변을 통해서 이 여파는 이미 감지되고 있다. AI의 두뇌는 딥러닝을 코딩하는 사람이 채택하는 모델과 그 모델에 입력된 데이터에 의해 만들어진다.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신학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기계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개발자는 생각해야 한다. AI를 윤리적으로 개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인류에게 유익하고, 바라기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도구로 AI를 개발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디를 향할 것인가?

AI는 적응한다. 대화형 AI 또는 ChatGPT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s)은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다. 지난 3월14일 출시된 ChatGPT 4는 ChatGPT 3.5보다 약 백

배 더 많은 매개변수가 신경망에 장착되어 실수가 줄어들었다. 앞으로는 AI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영역에조차 점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 9월에는 최초의 AI 작품이 예술 콘테스트에서 우승했으며, 12월에는 최초의 AI 제어 전투기가 17시간 이상 비행했다. AI를 작동하거나 활용하는 기술 보유의 가치가 점점 더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직업도 바뀌겠지만, 이게 처음은 아니다. 트랙터는 농업 인력의 4분의 3을 대체했다. 그 정도 수준의 변화가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AI가 기존 인간의 일자리 8,500만 개를 대체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9,700만 개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한다.

실질적인 삶의 질에서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AI로 구동되는 로봇이 집안일을 할 수 있다면, 거동이 힘든 노인이나 맞벌이 부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는 AI가 실명을 할 수 있다면, 지식 접근성은 더 가속이 붙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 갈 수 없거나 방대한 양의 책을 검색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AI는 쉽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모든 변화에는 단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점이 더 크다.

단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것은 AI가 과연 어디까지 유능해질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도무지 AI의 한계를 가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지금도 "특이점"(singularity)의 가능성(AI가 스스로 기술 성장을 지속하고 아예 멈출 수 없게 되는 경우) 여부와 발생한다면 과연 언제일지를 놓고 토론 중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AI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기억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1. 하나님은 일반적인 선(general benevolence and good)의 차원에서 여전히 기계를 사용하신다.

2. AI로부터 도움을 받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AI는 결코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 핵심은 목적과 정체성과 자율성으로 귀결된다.

AI가 설혹 인간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갖춘다"(intelligent) 하더라도, 뛰어난 지능이 AI에게 영혼을 부여하는 건 아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지능을 가진 생물이라는 인간의 지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문제이다. 설혹 AI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해도(돌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눅 19:40), 가능한 일이다) 그에게 인간이 하나님과 누리는 수준의 깊은 관계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AI 세상에서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더 가속화되어 퍼질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복음 성장에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한다.

나는 앞으로 20-30년을 더 기술 분야에서 일할 것이다.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기에 나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야 하는가? AI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성령으로 안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I와 같은 기술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걸 만들어내다니, 내가 바로 신이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하나 다를 바 없다.

나는 끊임없이 묻는다. AI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나는 AI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싶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고 싶다.

by Sarah Eekhoff Zylstra · Joel Jacob (TGC, "How Not to Be Scared of AI")

국가부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짐

(2면에서 계속)

기타 세부 정보

부채와 적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적자는 연방정부가 거둬 들이는 매년의 수입(세금 및 납부금)과 같은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금액의 차이이다. 국가채무는 이전의 모든 미지급 적자의 누계이다.

국채는 누가 보유하고 있는가?

2018년 기준 국채의 약 3분의 1(30%)은 외국 정부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일본과 중국이 1.2조 달러, 1조 600억 달러로 가장 많

은 미국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5개국 중 나머지는 영국(4,520억 달러), 아일랜드(3,220억 달러), 그리고 룩셈부르크(3,010억 달러)이다.

미국 내에서는 개인, 은행, 투자자들이 2조 2,8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뮤추얼 펀드는 3조 5,0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10조 8,100억 달러를,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별개로 1조 9,1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 부채는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

부채는 재무부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이자부 증권으로 발행된다. 일반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종류에는 재무부 증권, 확정금리채, 물가 연동 채권, 미국 저축 채권, 주 및 지방채 등이 있다.

어떻게 하면 부채를 줄일 수 있는가?

국가 부채는 다섯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만 줄일 수 있다: 증세, 지출 절감, 채무 재조정(채권자에게 그들이 진 돈보다 더 적은 돈을 받도록 요청), 채무의 화폐화(정부가 새로 인쇄한 돈을 사용하여 부채를 지불하는 것), 그리고 디플트(지불 거부)이다.

납세자들이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얼마나 필요한가?

그것은 국민 1인당 86,147달러 또는 납세자 1인당 228,321달러를 요구할 것이다.

시론

"Busan is Ready!"



민경엽 목사 (나침반교회)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BIE(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국제박람회기구)의 엑스포 유치경쟁은 11월 투표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예단하기 어렵지만, 일찍 준비를 시작한 데다가 막강한 오일머니로 엑스포를 유치하여 획기적인 발전을 꿈꾸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나 오랜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이탈리아의 로마에 비해 후발주자인 한국의 부산이 놀라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많이 따라잡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다른 나라들이 경직된 프레젠테이션이었던데 비해 한국은 한류

를 내세우며 부산에서 엑스포를 개최한다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확신을 주었고,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엑스포를 약속하였다. 이에 많은 나라들이 공감하고 부산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며 모국에 대한 자부심에 어깨가 으쓱하기도 하였다. 나는 개인적으로 가수 싸이가 6.25전쟁으로 인해 가장 피해한 나라에서 강대국의 대열에 당당하게 들어선 사실을 강조하는 대목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1945년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맞으면서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갈려져 미래가 불투명한 나라였다. 그런데 1948년 파리에서 열린 UN총회에서 독립국으로 승인받으려는 가운데 소련과 소련의 위성국가들은 결코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그래서 총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인 12월 15일 소련의 대표 비신스키가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했는데 그가 연설을 시작한 지 10분쯤 지나서 갑자기 성대가 결절되어 숨도 못 쉬고 소리가 안 나와서 응급실에 실려 가는 해프닝 때문에 독립국으로 승인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당시 대표단을 이끌고 가던 독실한 신앙인 장면 박사 일행은 인근 교회당에서 철야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었다. 이 사건이 왜 대단히 중요한가 하면 1년 6개월 뒤에 6.25가 터졌을 때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승인된 나라였기에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유엔군이 급파되었고, 47개국이 물자를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아닐 수 없다!

그런가 하면 6.25전쟁이 벌어지고 북괴는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 남한의 심장부인 서울을 단 3일 만에 점령하였다. 그러니까 서울을 완전 점령한 것이 6월 28일 오전이었다. 너무나 아무런 대비도 못한 국군이 엿기에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또 밀렸던 것이다. 또한 북괴는 일주일 내에 부산까지 밀고 내려와 계획이었다고 역사는 전한다. 그런데 서울에서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인 김일성이 3월 동안 아무런 이유도 없이 더 이상 남하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북한군이 한강을 넘어 남한한 것이 7월 1일이었다. 이것이 한국전쟁 최고의 미스터리다. 어떻게든 그 덕분에 일본일초가 아까운 국군과 미군은 방어진지를 구축할 수 있었고, UN의 파병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무기를 얼마든지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던 소련이 무기를 주지 않았고 당시 김일성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는 부산까지 점령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계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김일성은 서울에서 피가 마르는 것 같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호하셨다!

그 외에도 맥아더 장군의 9.15 인천상륙작전은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한 인천은 열 모두 다 상륙작전을 반대하였다. 북한군도 맥아더가 인천에서 작전을 펼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맥아더 장군은 그렇게 성공할 가능성이 5천분의 일밖에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역발상으로 도전했고, 하나님의 극적인 축복으로 열세로만 몰려든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73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놀라운 발전상을 이룩하게 되었다. 한류는 이제 대세다. 음식, 음악, 영화, 드라마, 반도체 등등 한국이 세계를 주름잡는 영역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그러나 이렇게 조국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당당하게 임할 수 있는 축복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Busan is Ready!"

minkyungyob@gmail.com

기독교 박물관 설립용 유물(遺物) 매도함

용도:

1. 독립 박물관: 상설전시와 순환,임시전시.
2. 부속 박물관: 교회,학회,단체,개인 등 부속기관으로 연구및 교육과 전시 목적을 위해 작은 공간 전시.
3. 하우스 뮤지엄: 집을 박물관으로 개조하여 소규모 전시를 하며 지역사회 명소로 문화적 가치 창출.
4. 모빌 뮤지엄: 다양한 장소에서 전시하며 이동식 트레일러,버스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
5. 북 카페 뮤지엄: 책과 커피 문화를 접목시켜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으로 포함 전시.
6. 기념관 및 도서관: 유물과 교역자의 자료를 포함하여 인물의 업적을 기리고, 교회 역사와 활동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
7. 온라인 박물관과 온라인 교회: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박물관과 예배에 기회를 제공.

자 료

유물:320점(Artifact: 320 points)

대표유물

최초 언문성경전서,사해사본복제판(희귀본), 바로크 수태고지 자수가구, 골드 Miniature-Bible, 등 다수

포 함

유물 연구자료, 컨설팅(일부)

관리자 혜택

이민 변호사 상담필수

연락처

Phone:1-(917)656-2626

E-mail: museum@mobw.com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스اید장로교회)

사랑 없이는 모든 것은 헛될 뿐이다

다음과 같은 글을 인터넷에서 찾게 되어 소개한다. "내가 다른 나라 말을 완전히 익히고 그 나라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어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졸업증서와 학위증을 받고 모든 현대적 기술을 배웠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당당히 싸워 이기고 그들을 조롱할 수 있어도, 주님의 호소하는 사랑의 목소리를 전하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강한 신념과 위대한 이상, 그리고 거대

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울며 기도하고 애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다른 이에게 웃고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집과 친구를 떠나 전도 사업에 몸을 바친다 하더라도, 하루하루 번거로움과 전도 사업에 대한 경멸을 참지 못하고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 버려서, 일상생활의 권리와 여가와 사소한 계획을 포기할 만한 사랑을 갖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 내게서 미덕이 사라지는 것이다. 내가 모든 아픔과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친절한 주님의 사랑을 갖지 못한다면 나는 아

무것도 아니요, 내가 어떤 기사를 쓰거나 책을 출판해서 감을 받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뜻을 그의 사랑의 말로 전달할 수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글을 보면 정말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 생각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면 열매가 있을 것이고, 사랑 없이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헛될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가 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예배를 드릴 때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될 것이고,

기도할 때 사랑을 담아 남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봉사할 때도 사랑을 담아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빠진다면 그것은 참 쓸모없는 것이 된다. 그 증거로 우리는 가끔 사랑이 담기지 않은 선물을 받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하찮은 것이라도 사랑이 담긴 것이라면 우리는 귀중히 다루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랑이 중요한 것이므로 매사에 사랑으로 언행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차용호 목사
(센터빌한인장로교회)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 이미 예언해 놓은 인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말 3:1) 복음서 기자들은 이 예언이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킨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돋는 해"로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준비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눅 1:79) 세례 요한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언대로 세상에 태어나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철저히 살았습니다.

준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홀연히 "광야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 나온 세례요한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고, 생각이 병이 들면 행동이 병자 된다. 생각이 주고자 하면 언제나 부유하고, 생각이 인색하면 돈 많아도 가난하다. 생각이 깨끗하면 행동이 신사 되고, 생각이 더러우면 생활이 부패한다. 생각이 예수이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생각이 부정적이면 한숨이 뒤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 하였음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렘 3:13) 3) 회개는 죄를 자복했으면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겔 18:30) 4) 죄를 떠난 사람은 이제 주님만 바로 보는 것이 회개의 마무리입니다. "그러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호 12:6)

품만 좋은 크리스천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부흥은 양적 부흥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생활을 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회개에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생활의 변화를 받아 새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죄요, 그 다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죄입니다.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눅 3: 5) 1)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축복의 길을 만들려면 우선 심령의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사람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부정적인 골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골짜기가 깊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축복의 길이 없습니다. 2) 마음의 높은 산을 낮추어야 합니다. 산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교만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길이 생겨집니다. 3) 마음의 굽은 것이 곧아져야 합니다. 마음이 바로 된 사람은 매사를 바로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밝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JOHN THE BAPTIST)

마태복음 3:1-12



A. 그 때에(1)(In Those Days)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마 3:1) "그 때에"는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입니다. 당시 로마는 가이사라 지배하고 있었고, 유대는 본디 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을 오랫동안 대적한 자입니다.

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마3:3)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마 3:1)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혼자 있는 광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압복 강가에서 야곱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따른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바른 사람은 바른 삶을 살게 되고, 생각이 악한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왜 해야 합니까?

1)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15:7) 2) 하나님께서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베후 3:9) 3) 회개한 자는 다시 일어납니다.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라"(욘22:23) 4)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마 3: 8) 즉 눈물로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열매 있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까?

그것은 천국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습니다.(마 3:2) 요한의 메시지는 "지금 천국의 왕이신 예수께서 바로 지금 여기에 등장하실 것이니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곧 천국은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누가 통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천국이 임했다는 말로 직 접 해석했습니다. 천국의 지배자요 통치자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천지가 진동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요, 예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C. 세례 요한의 사명(3)(Mission of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의 사명과 사역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D. 세례 요한의 책망(4-12)(Rebuke of John the Baptist)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마 3: 7)

1) 세례 요한은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무시무시한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 세례 요한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책망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자는 지금도 주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마 3:10) "손에 킈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마 3:1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회개의 삶으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알곡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seniorpastor@koreanpcc.org

집승도 방목하면 야생에서 약육강식에 의해 먹혀죽을 따름이다. 방목의 세계에서는 힘이 제일 우선이기에 그러하다. 그러나 집에서 길러져 유목한 짐승은 약해도,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적절한 때 사람을 보고 짖을 줄도 알고 철이 들어가는 것이다.

흔히 부모들 가운데, 때가 되면 철이 들것이라고 하지만 그 철이 들기까지 부모의 심장은 시커멓게 될 수 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운전하시도록 키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대리 운전이 너무 세거나 혹은 방목하게 되면, 성인 아이가 되어 스스로는 어떤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 될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숙한 신앙인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어엿한 어른을 보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섬기는 충성을 배우

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군대훈련만큼 강력한 것이 없어 보인다. 보통의 삶을 살아가던, 가장 개성 강한 젊음을 길들여(?) 일사분란한 생사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을 보면 좋은 인사이트를 얻게 된다. 대단한 특공용사로부터 일반 사병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공통으로 통과하는 필수 과정이 있다면 기본기의 훈련이다. 그래서 군대 가면 제일 많이 하는 훈련,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제식훈련이다.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기본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가르침과 본이 됨

신앙도, 신앙의 삶, 신앙의 헌신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신앙의 기본기를 가르쳐야 한다. 가르친다는 것은 익숙하기까지 반복하는 것이다. 반복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러나 교회 신앙의

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도해라 말씀하면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 빠르게 살라고 말하면서, 먼저 정직하고 빠르게 살아내야 한다. 인사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곳에 신앙과 삶의 회복, 세상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를 보고 듣는 이들이 반드시 있다. 그들을 다시 가르치는 자로 세우면 된다.

세대 관점의 전환

빛된 성도의 삶을 위해, 본이 되어 잘 가르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또 있다. 그것은 일꾼으로 양육하는 대상에 향한 관점의 전환이다. 특히, 교회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가 많다.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의 관심처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자식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

힘이 이들을 능히 가르치고 세울 수 있음을 믿는 것이다. 사도행전 2:17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녀들, 젊은이, 노인 세대 등 특정세대를 넘어서서, 전 세대가 모두 비전과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에 대한 훈련과 양육의 관점은 당연히 <은세대, 전세대>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어느 특정계층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회가 예배에 은혜가 넘치고 좋아지면, 그것이 당연히 다음 세대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확신 때문이다. 한마디로, 젊은 세대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지만, 자녀세대, 부모세대, 노년세대가 함께 <은혜받은 온 세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 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어느 교회의 안수집사로 봉사하다가 최근에 장로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장로가 되자 주일 예배 기도를 맡았는데 두렵고 떨립니다. 주일 대표 기도 때에 주의할 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우니 김장로가

“두렵고 떨림으로 한 주간 잘 준비하여 기도”

A: 주일 예배 시에 대표기도를 하시는 분은 온 교우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순서를 맡았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한 주간을 잘 준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자가 한 주간을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대표기도자들도 기도할 내용을 미리 써보고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표 기도자는 정장 차림으로 예배 30분전에 입장하여 마음 준비를 해야 합니다.

- 1) 사회자가 누가 기도하시겠다고 하면 바로 뒤에 대기하셨다가 인터발이 없이 바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 2) 사회자가 이미 누가 기도하시겠다고 했기에 기도가 다시 “다같이 기도합니다”라고 또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3) 대표기도 시간은 대략 3분입니다. 한 시간이란 제한된 시간에 예배가 진행되기에 기도자는 집에서 시계를 놓고 한 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4) 종이에 써서 기도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써서 하시더라도 읽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익숙하게 몇 번이고 연습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다 외워서 기도하시면 더 좋습니다.
- 5) 대표기도는 너무 폭넓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로 오늘 예배와 행사를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살고있는 지역의 복음화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설교자의 성령충만과 설교의 은혜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성가대 찬양과 주요 행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 6) 기도자는 항상 긍정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듣기에 부정적인 기도는 회중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듭니다. 지나친 정치적 언사도 삼가야 합니다.
- 7) 기도를 마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현재형을 쓰십시오. 기도하였습니다. 라는 과거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간구내용은 소원이며 미래지향적입니다. 간혹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라고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 8) 기도 시에 하나님을 당신이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우리말 2인칭은 존대어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라는 단어는 다만 3인칭에서 극존칭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3인칭이 될 수 없고 2인칭이 되므로 당신이라는 호칭은 절대 안 됩니다. 보통 아버지께도 자식이 당신이라는 말을 사용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당신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찬양사역자도 하나님을 당신이라는 찬양곡은 잘못되었으니 그런 곡 선정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교회의 일꾼 세상의 빛

-영적기본기, 본(本), 온 세대 부흥-

지 못하니, 세상에서도 참된 헌신과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 내지를 못하는 형편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서 구현하기 위해, 주인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충성하면 그의 길이 열려질 텐데,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고 살지를 못하니 세상에서 실천의 방법도 모호해진 것이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신앙, 교회생활, 교회에서의 충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세상 밖으로 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여겨진다. 교회의 일꾼이 되고, 교회안의 개구리가 될 때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던 그 충성이, 마침내 세상 주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이다.

빛된 성도, 기본기 훈련

세상에서의 빛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회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주의 대형교회에서도 마치 예전 개척교회에서 일꾼이 없어 갈급해 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한다.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현실적인 이유도 말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영적 가르침의 부재와 배우고 깨달아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가장 큰 이유이다. 교회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지에 대한 방향도 천차만별 부재하다. 그 결과 성도들은 자신의 지나온 신앙연수는 자랑하는 데, 마땅히 그 연수만큼 드러낼 열매는 너무 부재한 모습을 보인다.

주님의 탄식하시는 말씀처럼, ‘알지 못하기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가장 먼저 알도록 가르쳐야 하는가? 인생의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를 가르쳐야 한다. 사람을 양육하

가르침이 군대의 가르침과 다른 것은, 가르치는 자의 본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죽어야 된다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죽어야 한다. 충성을 가르치기 전에 충성꾼이 먼저 되어야 한다.

구약성경 잠언은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작품이다. 전반부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내 아들이! 내 아들이!’이다. 그 아들이 누구인가? 르호보암이다. 아들의 삶에 대해 깊이 간섭하는

지만,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식 때문에 속상해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다. 이런 경우는 서로에게 좋지 못함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 원망과 탄식이 결국 자녀와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서로를 위한 사랑이 불행으로 귀결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어떻게 하면 온전한 양육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신실한 일꾼일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빛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대)가 되어 각기 자신의 삶의 시간대에 부합되는 큰 은혜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교회는 반드시 치우침 없는 큰 부흥을 맛보게 될 것이다.

맺음말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잘 양육함이 세상의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영적 기본기를 가르쳐야 한다.



아빠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 런데 역대하 12장 14절을 보면, 그 르호보암에 대해 평가하기를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고 기록한다. 어이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아들을 교육하기에 좋은 훌륭한 글을 썼지만, 결과는 비극적이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솔로몬 자신이 집권초기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았음에 비해, 후반에 그의 사는 모습은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 정략결혼을 하고 궁정 안에 우상을 끌어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삶을 보여준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주어도 앞선 이들이 의식하면서 삶으로 분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치는 것은 보여주는 것

가장 먼저, 지나친 염려 근심을 내려놓고 앞선 세대가 믿음과 섬김의 본을 보이며, 무엇보다 담대한 은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는 말씀과 성령의 힘을 믿는 담대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 말씀과 성령은 은혜받은 통로가 된다. 은혜를 받게 될 때, 특정한 세대의 구분 자체가 없어진다. 다음 세대, 젊은 세대, 혹은 30-40 대를 특정하기보다, 온 세대(혹은, 전 세대, All Generation)로서의 사고전환이 성경적이라 여겨진다.

은혜받은 온 세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세대가 중요하고, 다양한 세대들이 다양한 모습의 가지고 있어도, 말씀과 성령의

교회중심, 예배중심을 가르쳐야 한다.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것은,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본(本)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특히, 교회는 미래의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근심, 염려, 분란만 일으키게 된다. 오직 말씀과 성령, 교회중심, 예배중심을 어느 특정한 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아니라, 전세대가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거침없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하고 부요해지면서 저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인정과 사랑을 넘치게 받게 될 것이다.

davidnjon@yahoo.com

알림

다음 주 신문(7월8일 자)은 본지 독립기념일 정기휴간으로 인해 휴간하오니 이점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이 되게하라

여러분이 어릴 때 교회를 다니셨다면 당시의 여름 성경학교는 영원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에서 배운 찬양곡은 6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저는 미국에 이민 와서 고등학교 시절 잠시 방황했던 적이 있었지만, 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도 이미 어릴 때 들었던 성경 이야기와 울동, 찬양이 잠재 속에 있다가 신앙의 결단이 필요할 때 한몫

했다고 믿습니다. 하기 성경학교로도 불리었던 한국의 VBS(Vacation Bible School)는 해방후 어린이들에게 글도 가르치고 바른 행동양식, 절도있는 삶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었다고 역사는 평가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듣게하고 어린 심령들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교회의 영혼구원 사역에 쓰임 받았습니니다. 이렇게 교회에 발을 들인 자녀들에 의해서 그 부모님들도 교회를 호

전적으로 보고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이나 서구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많이 침체되거나 학생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 죽으면 교회 전체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VB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재미있게 진행해서 많은 자녀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거움을 주는 나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복음이 그들에게 들리게 하는데 있습니다. 어린 심령일지라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회심과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삶의 시각이 넓어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말씀은 자녀들이 귀를 열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그들 수준의 그릇에 담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고 새사람이 되었음을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오래전부터 부모와 교사와 온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올해 필라델피아 영생교회의 VBS는 "Stella"라는 제목으

로 나흘간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많은 별 중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예수님의 별을 우리 자녀들이 알고 배우며 나도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의미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기간동안 매일 200명이 넘는 자녀들이 (교사와 보조교사 및 도우미 합 300명) 모여서 기쁨이 충만한 복음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교육 위원회 산하 교역자가 오래전부터 성실하게 기도하며 준비했기에 모든 교사들, 보조교사와 부모님들이 한마음으로 따라주어 좋은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강사로 오신 David Kim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어린 유치부 학생들부터 초등부 학생까지 경청하며 울고 웃으며 반응하는 모습에 예수님의 복음이 가진 강력한 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많은 어린이가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분명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루는 복음이 가진 특

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의 꿈은 영생교회만이 아니라 미주 한인교회의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예배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서 미국 사회와 전 세계에 선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최대한 개발하고 어느 분야든 탁월한 실력자가 되어서 미국의 주류 사회에 진출하여 예수님의 빛으로 쓰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몇십 년 후에 그런 현실을 맞이할 때 그들중에 2023년 VBS가 내 삶에서 전환점이 되었다고 고백한다면 VBS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이 얼마나 뿌듯할까요?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지만, 그 과정에서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스런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gyypac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잠잠해진 러 도시들... 프리고진은 아직 행방 묘연

러시아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이 모스크바 진입 직전 이를 군사행동을 중단할 선언한 뒤 철수하자 주요 도시들도 잠잠해진 분위기다. 로스토프나도 누는 바그너그룹이 모스크바 진격을 선언한 뒤 장악한 지역이다. 로스토프나도누 교통 당국은 "버스와 기차 승차권이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시민들을 다독였다.



AFP통신도 우크라이나 훈련캠프로 돌아가라는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명령이 떨어진 뒤 전투원들이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바그너그룹 소속 탱크 한 대와 군용차량 여러 대가 러시아 군 사령부에서 떠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밤 프리고진이 현지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로스토프나도누를 떠났다고 했다. 현지 매체와 SNS에 게시된 영상에는 바그너그룹 소속 탱크가 떠나고 바리케이드를 제거한 길거리를 청소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모스크바주 서남쪽에 있는 칼루가주도 이날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전날 러시아군과 바그너그룹 사이의 교전이 벌어졌던 보로네시에서는 이날 석유 저장 탱크 화재가 발생했다. 당국은 화재 원인을 밝히지 않았지만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테러 작전 체제가 선포된 모스크바에서도 이동 제한 조치가 단계적으로 해제되는 중이다. 방국은 다만 보안상 이유로 26일까지 내린 휴무령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발표했다. 모스크바는 바그너그룹이 빠른 속도로 목전까지 조여오자 외곽에 기관총 포대를 설치하고 도로를 파내는 등 대비에 나섰었다.

중국 신화통신은 폐쇄됐던 크렘린궁 앞의 붉은광장도 제한적으로 관광이 허용됐다고 전했다. 모스크바 내 3개 공항이 모두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그너그룹의 본사가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도 특이 동향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크렘린궁은 전날 "프리고진에 대한 형사입건은 취소될 것이며 그는 벨라루스로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바그너그룹 소속 병사들의 안전 보장도 약속했다. 벨라루스 대통령실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 하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프리고진과 협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러시아 내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40도 폭염' 펄펄 끓는 베이징... 일상이 뒤집어졌다

중국 베이징과 톈진 등 서북부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사흘째 계속됐다. 단오 연휴(6월 22~24일) 베이징을 찾은 중국 여행객들은 펄펄 끓는 날씨 탓에 낮에



는 실내에서 더위를 피하고 밤이 돼야 외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24일 베이징과 신장 등 서북부 지역에 고온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다. 이 일대 최고기온은 37~39도를 기록했고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성과 산둥성 등 일부 지역은 40도에 달했다. 중앙기상대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고온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다. 베이징 기상대는 지난 22일 고온 적색 경보를 발령한 뒤 사흘 연속 경보를 유지했다. 22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41.1도까지 올랐고 23일에도 40도를 넘어섰다. 베이징의 지표 온도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71.8도를 찍었다.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아 도심 전체가 사우나처럼 달아올랐다. 중국의 고온 경보는 청색, 황색, 주황색, 적색 등 4단계로 나뉘며 이중 적색은 24시간 이내 최고 기온이 40도 이상일 때 발령된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베이징과 산둥성 등 북방 지역에서 최고기온이 35도를 넘는 고온일 수는 6.4일로 평년(3.3일)보다 배 가까이 많았다.

중국 기상국의 저우빙 수석연구원은 "올해 기후는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비정상적이며 엘니뇨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더 더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 폭염은 베이징의 단오 연휴 풍경도 바꿔놨다. 후난성에서 베이징으로 여행 온 천모씨는 현지 매체에 "낮에는 너무 더워 박물관이나 쇼핑 등 시원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밤이 돼야 밖으로 나와 자전거를 타고 베이징을 구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둑 없는 세포 배양 닭고기,美서 첫 판매 승인

미국 농무부가 21일 세포 배양 닭고기의 일반 소비자 판매를 처음으로 승인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세포 배양 닭고기(배양육)는 특정 가공육 및 가축 세포를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바이오리액터(생물반응기)에 넣고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 배양한 고기를 말한다. 현재 150개 이상 기업이 유명 투자자와 기존 육류 대기업에서 자금 투자를 받아 배양육 개발과 생산에 나서고 있다.



WSJ는 "동물은 도축하지 않고 지구 훼손을 줄이면서 증가하는 글로벌 육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과학자들과 기업이 개발한 닭고기를 맛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승인을 받은 배양육은 스타트업 '업사이드푸드'와 '굿미트'가 생산한 제품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배양육을 승인한 국가가 됐다. 식품기술회사 '이저스트'가 2020년 싱가포르에서 배양육 닭고기의 판매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굿미트는 이저스트의 계열사다. 굿미트는 이미 싱가포르에서 배양육을 너겟 등으로 가공해 판매하고 있다. 배양육 지지자들은 배양육이 가축 사육의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토지와 물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장 조사업체인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약 2억4700만 달러(약 3190억원) 규모로 평가된 배양육 시장은 2030년 250억 달러(약 32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배양육 상용화를 위해서는 많은 과학·경제적 과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WSJ는 "대부분 기업이 세포배양 육류와 해산물의 소량 생산에 성공했으며 저비용 대량생산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빅테크 해고에 실리콘밸리 빈 사무실 급증

글로벌 혁신 기업의 요람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빈 사무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에 대비한 인원 감축이 이뤄지고 재택 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병행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근무'가 보편화한 영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인용한 미 부동산 데이터업체 코스타그룹 자료를 보면 새너제이, 팰로앨토, 서니베일 등 실리콘밸리의 오피스 공실률은 이달 초 17%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발 직전 해인 2019년 11%와 비교하면 7% 포인트 급증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플랫폼의 본사가 있는 멘로파크와 구글 본사가 있는 마운틴뷰의 공실률은 20%에 달한다.

실리콘밸리의 공실률은 25%를 넘긴 샌프란시스코 북부 지역의 평균 공실률보다 낮다. 하지만 부동산 분석가들은 이 격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기술기업들이 해고를 단행하며 급격한 몸집 축소에 나서고 있어서다. 더글라스 린데 보스턴 프로퍼티스 사장은 "임대 활동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WSJ에 말했다. 여기에 빅테크 기업들은 인원 감축의 후속 조치로 사무실을 임대시장에 내놓고 있다. 최근 마운틴뷰 등에 있는 12만㎡ 규모의 사무실 재임대에 나선 구글이 대표적이다. 메타도 서니베일에 있는 6만5000㎡ 상당의 공간을 재임대 시장에 내놨다.

오피스 공실률 증가는 지역경제 침체로 직결된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심 식당 등 접객업과 소매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상업용 건물의 가치가 하락해 부동산 세수가 줄기 때문이다. 이미 실리콘밸리에서는 구글이 새너제이 지역에 짓기로 했던 80에이커(약 9만8000평) 규모의 초대형 캠퍼스 '다운타운 웨스트'의 건설 계획을 무기한 중단하면서 이런 우려가 퍼진 상태다.

"무섭지만 아빠 위해 봤는데" ... '타이탄' 유족의 슬픔

바닷속 침몰한 타이태닉호를 보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잠수정 '타이탄'에 탰다 숨진 10대가 "탐사를 두려워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미국 NBC



에 따르면 숨진 관광객 중 한 명인 파키스탄 기업가 샤자다 다우드는 19세 아들 술레만 다우드와 함께 타이탄에 탰다 사고를 당했다. 샤자다의 누나인 아즈메 다우드는 동생과 조카의 사고 소식을 "믿을 수 없다"며 흐느꼈다.

아즈메에 따르면 조카 술레만은 탐사에 나서기 직전까지 망설였다고 한다. 아즈메는 다른 친척에게 들었던 얘기를 전하며 "술레만은 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무서워했다"고 말했다. 그런 술레만이 모험을 결심한 건 '아버지의 날'을 맞아 타이태닉 전설에 열광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18일 북대서양 해저에 가라앉은 타이태닉호를 탐사하러 '타이탄'에 탑승했던 부자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아즈메는 "타이탄 구조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카운트다운이 있는 형편없는 영화에 갇혀있는 느낌이었다"며 "그들(동생과 조카)을 생각하면 숨을 쉬기도 힘들다"고 심경을 전했다.

숨진 샤자다의 아내와 17살 딸은 사고 당시 잠수정이 출발한 선박에서 가족들의 안전 귀환을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타이탄은 잠수를 시작한 지 1시간 45분 만에 연락이 끊겼고, 해양경비대는 타이태닉호 침몰 지점 인근인 해저 1600피트(약 488m)에서 잠수정 선미 덮개 등 잔해를 발견해 탐승객들이 전원 사망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흑인 인어공주 때문?... '디즈니 다양성책임자 6년만에 사임'

디즈니의 최고다양성 책임자(CDO) 겸 수석 부사장 라톤드라 뉴튼이 재직 6년여 만에 회사를 떠난다. 21일 미국 대중문화지 버라이어티·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디즈니 인사 책임자인 소니아 콜먼이 직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보냈다.



매체는 "뉴튼이 곧 다른 회사의 이사회에 합류할 예정이며 자신이 소유한 개인 회사 업무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즈니는 뉴튼의 사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뉴튼의 업무는 인재유치 담당 수석 부사장인 줄리 메르제스가 임시로 맡을 예정이다. 뉴튼 부사장은 2017년부터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 운영 책임자로 일해 왔다. 그는 전 세계 관객을 작품에 반영하며 제작하고 포용하는 업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팀과 협력해왔다.

로이터는 이러한 노력을 대표하는 작품이 최근 개봉한 '인어공주'라고 지적했다.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를 실사화한 이 동명의 영화는 미국의 흑인 가수인 할리 베일리리 에리얼 공주 역으로 캐스팅했다. 뉴튼 재임 동안 디즈니는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를 비롯해 기타 소수자 캐릭터를 애니메이션 시리즈와 영화에 등장시켰다. 일각에서는 뉴튼 부사장의 사임이 최근 '블랙 워싱(Black washing)' 논란을 빚은 영화 '인어공주'의 글로벌 흥행 실패에 따른 여파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블랙 워싱'이란 미국 영화·드라마 등에서 백인 배우를 우선 기용하던 관행인 '화이트워싱(white washing)'에 견줘 나온 말로 인종적 다양성을 위해 흑인 등 유색인종을 작품에 무조건 등장시키는 추세를 비꼬는 표현이다.

'인어공주'는 제작과 캐스팅 단계에서부터 일부 팬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전통적으로 디즈니를 대표하는 '프린세스 애니메이션' 시리즈 중 붉은 머리와 흰 피부인 '인어공주'의 에리얼이 실사화되면서 흑인 캐릭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디즈니는 "인어공주는 허구다. 만화와 (흑인 인어공주) 다르다는 이유로 탁월한 캐스팅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라고 맞선 바 있다.

'인어공주'는 메모리얼 데이 첫 주말 나흘 동안 1억1750만 달러(1500억여원)로 메모리얼 데이 주말 기록 중 역대 5번째로 많은 수익을 거두며 선전했지만, 글로벌 흥행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72. 심상현 (1885-1964)

심상현은 1885년 6월 14일에 한국에서 태어나 황해도 송화에서 거주했다. 그는 19세가 되던 1904년 7월 18일에 총각으로 이민선 차이나호를 타고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영어로 이민선을 탈 때는 Sang Hyun Shim으로 사용했고,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록에는 그의 이름이 Sang Hun Shim 또는 Song Hun Shim으로 적혀있다. 그는 농장 노동자로 하와이섬 고하라에서 노동하였다.

고하라 한인감리교회

하와이로 이주한 지 12년이 되던 1916년 2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있었던 제11차 하와이 선교연회가 있었다. 루이스 감독이 사회를 하였고, 감리사는 윌리엄 헨리 프라이 목사였다. 이 연회에서 심상현은 김윤구와 함께 하와이섬 고하라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을 받았다. 이는 그의 하와이 선교사역의 시작이었다. 그해 본 교회 목사는 차운충이었고, 전도사는 황정Y였다. 심상현이 권사로 임명받던 2월 보고서에 따르면 1년 전에 받은 세례교인이나 보고한 그달 등록 교인이나 엠위스 청년회나 수지 현황에 대한 보고는 없었고, 단지 주일 학교에 관한 보고만 있었다. 2명의 주일 학교 교사가 있었고, 25명의 학생이 등록하였다. 이듬해인 1917년 하와이 선교연회록을 찾을 수 없어 심상현의 1년간의 사역을 엿볼 수 없다.

파파로아 한인감리교회

1917년이나 1918년에 심상현은 하와이섬 파파로아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박성배와 이관영과 함께 그는 1918년 3월에 애드나 W. 레오라드 감독의 사회로 모인 제13차 하



파파로아 한인감리교회 (1910년)

와이 선교연회에서 파파로아 한인교회의 권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해 박종수가 지난해에 이어서 본 교회 목사로 파송을 받았고, 하와이 선교연회가 전도사를 파송하지 않았다.

매트 S. 휴즈 감독의 사회로 1919년 3월에 개최한 제14회 하와이 연회는 심상현을 위의 파파로아 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파송하였다. 심상현이 전도사로 파송받기는 처음이었다. 성찬식과 세례식 이외에 그는 결혼식과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었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다. 1920년 제15회 하와이 선교연회에 보고한 바대로 1년간의 사역의 결과로 4명의 세례 교인, 3명의 입교 교인 그리고 4명의 학습 교인이 있었는데 위의 4명의 학습 교인은 지난 한 해 동안에 받은 학습 교인이었다. 1918년 통계와 비교하면 세례 교인 1명과 11명의 학습 교인이 이 지역을 떠났다. 주일학교 교사는 한 명 줄었으나 등록한 학생은 22명이었고, 엠위

스 청년회는 6명이 늘어 22명이었다. 본 교회는 100주년 기념 헌금으로 70달러를 헌금하였다.

심상현은 1920년에 애드나 W. 레오나드 감독의 사회로 모였던 제15회 하와이 선교연회에서도 위의 파파로아 한인감리교회의 전도사로 다시 파송 받았다. 박종수 목사 대신에 파송된 이관목 목사를 도왔다. 그런데 1921년의 제16회 하와이 선교연회 보고서에는 이관목이 아니라 박종수의 이름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어 혼란스럽다. 그런데 작년과는 달리 이 해에는 박성배와 이관규가 권사로 파송을 받았으므로 교회의 성장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1921년 2월에 세례 교인이 2명이었고, 어린이 세례 교인이 3명이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학습을 받은 교인이 4명이었다. 안타깝게도 지난 1년 동안 2명의 교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주일 학교는 5명의 교사와 22명의 학생이 등록하였고,

웬위스 학생회에 14명이 등록하였다. 한 해 동안에 이룬 사역으로는 예배당 건축을 꿈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예배당을 다시 지었다고 한다. 예배당 토지 비용 500달러를 빼면 1,500달러로 예배당을 건축한 것으로 파악되고, 건축 관리에 286달러를 지출하였다. 그리고 100주년과 기타 목적으로 70달러를 헌금하였다. 1922년에 보고된 하와이 선교연회록에는 파파로아 한인감리교회가 적히지 않아 한인 노동자의 이동으로 본 교회가 문을 닫았을 것 같다.

힐로 한인감리교회

그즈음 심상현은 힐로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1923년에 그는 힐로에서 등사판으로 된 힐로시사를 발행하였는데 정간이 되었다가 사장 심상현과 편집인 진연철의 이름으로 1924년에 다시 출간하기로 하고 활자를 구매하고 신문을 확장할 계획을 하였다.

1927년 2월에 모인 제22차 하와이 선교 연회에서 심상현이 하와이섬의 힐로 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다. 이정두와 다른 한 명의 전도사와 함께 힐로 한인감리교회에 파송을 받은 첫해 본 교회로 파송을 받은 자로는 이관목, 박종수가 있었는데 이관목은 목사였고, 박종수는 집사 목사 곧 준회원이었다. 위의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내지선교/교회확장장부의 부장인 일본인 T. 고무로 목사는 본 연회와 필라델피아에 있는 내지선교/교회확장부에서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 사택과 마우이섬의 푸코리에 있는 필리핀 교회와 일본 교회의 예배당 건축과 함께 힐로 한인장로교회 예배당 건축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1933년에 심상현은 힐로감리교회 전도사로 다시 파송을 받았다. 그해 5월 7일 저녁 6시 밤에 열넷청년회 체임퍼가 있었다. 이날 회장에 김세라, 전도국에 김양수, 인제국에 최순

이, 학문국에 김순이, 교제국에 김순복, 통신국에 이원태, 회계국에 한도원이 선임되었다. 그달 17일에 감리사 프라이 박사가 힐로 감리교회를 방문하였다. 그날 저녁 7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여 감리사가 설교하였고, 이어서 계속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한 직원은 목사 이관목, 전도사 심상현, 감봉서 그리고 김보연, 권사 김창운, 주일학교장 대리 김순복, 청년회장 김세라, 유사 피희선과 이정근, 탁사 전익서, 고성화, 김원섭 그리고 오영식, 속장 안선도, 김베드로였다. 각 임원의 보고가 있었고, 유사의 보고에 따르면 수입이 308달러 77센트였고, 지출이 301달러 71센트여서 잔액이 7달러 6센트였다.

1934년에도 심상현은 힐로 감리교회 전도사로 봉직했다. 그해 8월 20일 저녁 7시 반에 본 예배당에서 그의 아들 심라득과 한장춘의 딸 한텔마가 이관목 목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거행했다. 잔란하게 단장한 가운데 2백여 명의 객이 모인 가운데 풍금 소리를 따라 결혼식을 마친 후 사교실에 모여 다과를 나누었다.

1935년 이후 하와이 선교연회록에 전도사 명단과 교회 현황 보고가 없어 심상현의 선교 사역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 1916년 이후 1922년까지와 1927년 이후 1934년까지 권사 전도사로 파송을 받아 하와이에서 한인을 중심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했다고 보인다.

심상현은 오랫동안 철도회사에서 봉직하였고, 1933년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으며, 1956년과 1957년에 힐로 대한인 상부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1964년 4월 28일에 7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와이 힐로에 있는 호메라니 기념공원에 안장되었다. 그에게 아내 다니심과의 사이에 두크, 해리, 도날드, 순태 등 자녀를 두었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인대학원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 521-09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주일영아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gusa@ehoo.com / www.lbgc.com Tel: (323) 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가주든한교회</p>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금)</p> <p>Tel: (714) 772-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예배: 오후 1:20 영어권 (장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11: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Tel: (310) 719-2244, www.dkc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 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영아)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세례기도회(화-토): 오전 6:00</p> <p>Tel: (213) 381-2202, www.mpcsa.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626) 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한오</p> <p>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 854-4010 / bible@bdc.org / www.bdc.org 18700 Hanover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소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 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세계선교회</p> <p>담임목사: 김창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213) 388-1827 / www.wmca.com / web@missionchurch3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p>
<p>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e-Feng Church)</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6:30</p> <p>Tel: (310) 749-475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부)</p>	<p>열매교회</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피스사역원</p> <p>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합동목사)</p> <p>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오후 4:30 사역대상: 1. 영혼사역자 2. 교회 관심도 여성 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세미나 3. 일일사역 4. 네트워킹사역</p> <p>www.elpisfamily.org Tel: (562) 894-6214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온라인세례기도회: 365일 24시간 온/오프</p> <p>Tel: (714) 446-6202, www.graecm.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행회: 오후 7:20(금)</p> <p>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 749-4500, www.go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종은마을교회</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14) 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이홍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 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예배: 오후 8:00(본당) 세례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p> <p>Tel: 310-370-5500, www.torancejo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히비스산교회</p> <p>담임목사: 김덕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세례예배: 오전 5:30(월-금) 수요예배: 오전 6:30(토) 수요예배: "어성경이 읽어주세요" 오전 9:30 오후 7:00</p> <p>Tel: (213) 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외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9장 회심하지 않는 자의 죽음은 자신의 책임(5)

교리 7 적용

4.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진리들

1) 자신을 파괴하는 것은 본성의 원리를 깨뜨리는 것 만물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만의 번성과 행복과 완전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파괴시키려고 하는가?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은 여러분이 본성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이웃을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온 세상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2) 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죄인

여러분은 단지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면서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질병과 고통을 증가시키는 열병을 가진 자가 병을 고치려 마시는 것과 같고, 피부병을 긁어서 상처를 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3)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로 죄의 원인

만일 온 세상이 합쳐서 여러분을 대적하려 하거나 지옥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합쳐서 여러분을 대적하려 해도 그들은 여러분의 동의 없이는 여러분을 멸망시키지도 못하고, 죄짓도록 하지도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대적하는 일을 스스로 하려 하는가? 여러분이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할만한 지성이 있다면 왜 여러분은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경건한 삶에서 점점 멀어지며,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다면, 마귀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에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4) 하나님의 신뢰를 깨뜨리는 죄인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고 부지런히 독려하셨다. 바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잠 4:23).

5) 자신에게 무자비한 죄인들

여러분이 자신에게 무자비할 때, 여러분은 모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막고 있는 것과 같다. 심판 날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쫓아내시며 "안 된다. 너는 너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것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고집 말고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만일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스스로 자신을 멸망케 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여러분을 얼마나 불쌍하다고 여기겠는가?

6)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 지옥의 영원한 고통

여러분이 자신을 고의적으로 멸망에 빠지게 했다는 생각을 끊임도 또 끊임의 것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거리가 될 것이다. 지옥에 온 것이 여러분 자신의 책임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영원토록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각이 될 것인가? 이런 날에 대해 여러분은 경고를 받고, 또 받았지만 여러분은 끔찍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죄를 범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처럼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오용했고 교훈을 받지도 않았다. 진정한 성도들의 모범을 보았지만 그들을 따라 하지도 않았다. 그리스도와 은혜와 영광을 제시받았지만, 육신적인 쾌락에 더 마음을 쏟았다. 여러분은 돈을 가졌지만 그것을 투자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잠 17:16). 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자신의 영혼에 고의적으로 잘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나라"(잠 8:33-36).

2) 회심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비인간적이고 어리석게 행동한다

5. 회개하겠는가? 아니면 죽겠는가?

1) 더 이상 토한 것을 다시 먹지 말라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영원한 불 속에 들어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나는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물겠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가? 회개하려 하는가? 아니면 죽으려 하는가? 만일 의사가 그의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을 먹게 하거나, 그를 죽일 수 있는 독극물을 먹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경우이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계속 죄를 짓고 살았지만, 이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와서 그리스도의 치료책을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 것이다. 여러분의 치명적인 죄들을 회개함으로 버리고, 더 이상 토한 것을 다시 먹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은 건강하게 될 것이다. 비록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억지로 약을 삼키게 하면, 약이 여러분의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이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혼의 경우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 자신이 싫다고 하면 우리는 여러

분을 억지로 회개시킬 수 없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은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

2) 회심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비인간적이고 어리석게 행동한다

사람들이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교양 있고 예의바르고 좋은 이웃들이지만, 가장 큰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비인간적이고 어리석다는 것이 아주 이상하게 보인다. 내가 그들에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내세에서 보고 알게 될 것들을 말해주면,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믿지도 않고 그다지 관심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일 내가 길에서 그들 중의 누구를 만나서 저쪽에 큰 구멍이 있다거나 혹은 늪지가 있다거나 도저히 건너고 있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들을 설득시켜서 길을 돌이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사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죄가 그들에게는 독이며 지옥은 농담처럼 무시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면, 그들은 마치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계속 자기 길을 걸어간다.

다시 한 번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구세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기를 간청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는 오늘까지 무지하고, 부주의하며, 망상 속에서 살아왔다. 여러분 모두는 세상의 관심사에만 몰두 해 왔고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에 대하여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3)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모두는 먹고 마시는 것과 노는 것과 정욕을 추구하는 육신의 노예이다. 여러분 모두는 거룩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며, 여러분의 영혼에 역사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9면으로 계속)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파시픽대학교 교수)

변할 수 없는 것

십 여년 넘게 참여하던 청년 운동에서 많은 직책을 올해로 내려 놓았다. 세미나 강사로, 조장들의 멘토로, 그리고 공동대표로 해마다 여름이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단체였다. 어느새 공동대표 중에서도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는 젊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일주일을 대학 기숙사에 머물며 젊은 청년들의 스케줄에 맞춰 움직일 체력이 자신이 없어지는 나이가 된 것 같아서였다. 해마다 마음을 쏟던 컨퍼런্স였으므로 빈자리가 서운하기도 했다. 마침 제자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어느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강사로 섬겨 달라는 부탁이 와서 흔쾌히 수락했다. 이제 청년들과 함께 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청년들과 며칠 동안 보낼 시간을 주신 것이 감사했다. 세 번의 세미나와 주일 설교를 부탁받고 주제에 맞는 내용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 강의 중에 성적 순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싶었는데 성인이 된 우리 세 아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크리스천의 가치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더욱 세상과 동화가 되어가는 젊은이들의 가치관의 흐름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교화에 정지적으로 출석하는 주변 친구들이 동거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심지어 나도 알고 있는 한 청년은 동거하던 여자와 헤어지기 전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부부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 애 크리스천 아니니?"라고 질문을 한다. 성문화가 점점 자유롭게 변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결혼 전의 성관계, 동거는 현대의 젊은이들에게 그다지 낯설지 않은 일도 아니다. 오히려 순결을 지키는 친구들을 "천연기념물"이라고 부르며 기이한 사람 대하듯이 한다는 말을 들은 것이 심여 년 전이니 요즘에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문화적인 영향력이 크리스천에게도 별다른 차이 없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도덕적 상대주의로 표현되는 "나의 삶은 내가 결정하며 나는 그 어떤 사람의 조언이나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만연한 결과이다. 요즘 시대는 초고속으로 변한다. 발달된 인공지능이 학교 과제까지 대신 해주는 시대가 되어서 학교에서는 교수들이 그런 과제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뿐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치관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남자 친구, 여자 친구와 버젓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에 대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 급속히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아랑곳없이 변화를 거부하며 고집을 부리는 것은 답답한 모습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도 변할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할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성경적인 삶의 원리이다. 그러잖아도 거의 잔소리로 여겨지는 "라떼(나 때는 말이야)"로 어른들의 말은 크게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에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바른 성경적인 생활 원리를 전달할 수 있을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에게 아날로그에 익숙한 어른들의 말은 한낱 잔소리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되었다.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장소에 위치한 수련회 장소에서 만난 청년들을 보니 혼돈스러운 세상 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아들 같고 딸 같은 청년들에게 이 세상이 던지는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자고 격려했다. 이제 오늘 아침 마지막 메시지를 끝으로 청년들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젊은 날의 많은 고민들을 안고 살아갈 이들이 스스로의 열심과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룩의 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의 매일의 경건의 시간이 쌓여 그분을 닮은 성품을 이루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의 옛사람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며 잡아당기는 욕망을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람이 지니는 거룩을 옷 입어서 세상문화를 거스르고 합치게 나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올해도 젊은이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lpyun@apu.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with 4 columns and 4 rows of church listings, including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churches like Galbraith, Danjok, and others.



목회서신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화해와 용서

창세기 31장에는 도망가는 야곱과 추격하는 외삼촌 라반이 나온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더이상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는

자신의 노동력만 착취당하고, 자신의 가정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몰래 도망

가는 것 밖에 없었다. 반대로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은 그야말로 돈 벌어다 주는 기계(cash cow)였다. 그러나, 야곱을 보내줄 수 없다. 더 오

래 우리 집에 있으면서 내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게다가 야곱이 몰래 도망했으니 어떻게든 쫓아가서 야곱이 들고 간 모든 것을 다 가져오자 했다.

그렇게 발에 땀이 나도록 도망가는 야곱과 그보다 빠른 속도로 추격하는 라반은 갈라엿이라는 지역에서 드디어 재회하게 된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라반과 야곱은 서로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야곱아, 어떻게 나를 속이고 내 딸들과 내 재산을 다 들고 갈 수 있느냐?”

“삼촌, 내가 삼촌을 속이기 전에 삼촌이 먼저 나를 속였습니다. 내 품삯을 열 번이나 깎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말이다.

이렇게 서로 분노의 말을 던지다가 갑자기 라반의 태도가 누그러진다.

잠깐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니, 이것이 싸움 문제가 아니

라, 품어 안을 문제로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숨 좀 가라앉히고 보니 야곱과 라반이 서로 적이 아니라 가족임이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각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사이가 좋지 않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저 사람이 먼저 화를 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한숨 돌리고 나서 곰곰히 생각해 보면, 화 좀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면 그 명분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서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더 귀하다. 야곱과 라반의 대답에서 라반이 먼저 손을 내

미어 화해가 성립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야곱과 라반이 화해의 인약을 맺은 장소에 갈라엿, 곧 ‘증거의 무더기’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이름을 하나 더 붙이는데, 바로 ‘미스바’이다. 미스바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이 화해를 잘 유지 하자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 순간 한순간을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자. 바로 이것을 기억하면 내가 먼저 손 내릴 수 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양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내 자존심보다 함께 누리는 화평을 선택할 수 있다.

화해와 용서는 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평안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wmclakim@gmail.com

소셜 미디어가 아이들에게...

(1면에서 계속)

가정 연구원 제니 에릭슨과 브래드포드 윌콕스의 지적이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가 바로 그 요인이다. 특히 일부 청소년과 청년은 TikTok이나 Instagram 같은 플랫폼의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조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1-13세 소녀들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지난해 내부모발자에 의해 유출된 페이스북 자체 연구에서는 십대 소녀들의 인스타그램 사용과 자살 충동 증가(13.5%), 섭식 장애(17%), 자기 신체 비하(32%)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미: 인간의 발명품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일부이며 대부분이 우리의 번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이 가져다주는 잠재적 이점에만 초점을 맞출 때, 기술

이 초래할 수 있는 명백한 피해와 고통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셜 미디어와 같은 통신 기술이 거기에 해당한다. 사실상 소셜 미디어의 위험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은 느렸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어린이와 십대에 미치는 악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인간의 생각과 상호 작용에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20세기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해럴드 이니스는 미디어 기술이 인간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기술은 (1) 관심 구조, (2) 상징의 특성, 그리고 (3) 공동체의 본질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을 소셜 미디어에 적용하면 중요한 관심 영역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관심 구조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주제를 가리킨다. 알고리즘 시대에 소셜 미디어는 어린이와 십대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양성에, 섭식 장애, 트랜스젠더리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십대의 수가 급증하는

현실은 이런 주제를 홍보하는 소셜 미디어가 넘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조금도 놀라지 않다.

선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십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의 길로 빠지는 건 어렵지 않다. 피트니스에 건전한 관심으로 가졌던 십대가 비현실적인 신체를 이상적이라고 홍보하는 게시물들의 맹공격을 받아 신체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다음 단계는 어디일까?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은 거식증(“pro-ana”) 또는 폭식(probulimia) 사이트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극도로 마른 신체에 대한 열광(“thinspiration”)을 조장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유도할 수도 있다.

상징의 특성, 즉 정보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방식도 소셜 미디어에 의해 혁신되었다. 간결함과 즉각적인 만족을 선호하는 플랫폼은 복잡한 아이디어를 이모지(emojis), 해시태그, [역주: 위험한 행동을 찍어서 온라인에 올리려는] 바이럴 챌린지로 바꾼다. 이러한 변화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떨어뜨리고 성경 및 신앙과 같은 주제까지도 피상적인 이해에 그치도록 만든다. 질문과 의심을 헤쳐 나가도록 돕는 부모와 목회자 또는 성숙한 어른 대신, 플랫폼은 심대로 하여금 점점 더 경솔하고 정보가 부족한 친구를 의지하도록 자극한다.

공동체의 본질까지도 소셜 미디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SNS 플랫폼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의미 깊은 관계 대신에 얕고 덧없는 상호 작용을 촉진할 뿐이다. 따라서 SNS가 조장하는 공동체는 공감 및 갈등 해결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기술의 발달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십대는 소셜 미디어를 “실생활”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Instagram, Facebook, TikTok 같은 플랫폼에서 우리는 종종 이상적이고 종종 비현실적인 묘사로 넘치는 타인의 삶에 정기적으로 노출된다. “완벽한”(물론 포토샵으로 수정된) 몸매, 호화로운 라이프스타일, 흠잡을 데

없는 외모를 과시하는 친구와 유명인을 자신과 비교하며 왜곡된 자아상을 만들 수도 있다. 십대와 십대 초반의 아이들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쉬운 나이이다. 결국에는 신체 불만족, 낮은 자존감 및 섭식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사이버 괴롭힘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이다. 인터넷 이전까지 괴롭힘은 대부분 학교 운동장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스크린을 통해 가정에까지 침투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괴롭힘, 트롤링[역주: 상대를 주제에 벗어난 댓글 등으로 괴롭히는 행위] 및 학대의 온상이 되었으며, 익명성은 가해자를 더 대담하게 만든다(이 사실은 트위터 사용에 본 모든 성인이 증명한다). 사이버 괴롭힘의 영향은 파괴적이며 불안, 우울증,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자살 충동까지 이어진다. 2022년, 퓨 리서치(Pew Research)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13-17세 미국 십대의 거의 절반(46%)이 여섯 가지 사이버 괴롭힘 행위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이 소셜 미디어에 대해 직접적으로 주는 말씀은 없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고려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가르친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잠언 13:20)

아이들이, 약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잠언 1:10)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고린도 전서 15:33)

온라인에 노출되는 어린이와

십대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녀의 영혼을 돌보시며 그의 왕국으로 그들을 영접하시려는 분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그분에게 자녀의 마음과 그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역사해달라고, 그들의 발이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무엇보다 오로지 그분만을 기뻐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더 과감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아예 스마트폰을 없애는 것이다. 레오나르도 섹스의 말이다.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나는 기본적인 사항에 주의를 기울인다.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모든 부모가 인터넷 액세스가 가능한 모든 장치에 부모 모니터링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Common Sense Media는 Net Nanny와 Qustodio, Bark 또는 Circle 등의 부모 모니터링 앱을 권장한다.

자녀에게 스마트폰 사용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설명하라. 부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은 특권의 박탈로 이어진다고 말하라. 부적절한 사용은 어떤 것인가? 외설 사진을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하는 것이다. 사이버 괴롭힘이다. 불쾌한 댓글을 익명으로 게시하는 것이다. 부모 모니터링 앱은 이런 일의 발생 여부를 알려줄 것이다. 부모라면 자녀의 스마트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아야 한다.

섹스는 덧붙인다. “부모에게 드리는 조언: 국가가 법률로 조치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건 언제가 되어야 가능할지 모른다. 부모라면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한다.”

기독교명서로의 초대

(8면에서 계속)

또한 여러분은 살아 있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복되신 구세주를 한 번도 신뢰해 본 적도 없었다. 여러분은 육신적인 성공과 세상에 속한 낮은 것보다 하나님과 천국에 대하여 더 높이 평가하거나 더 열정적인 사랑을 나타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간청한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이전 상태로 하루라도 그대로 있지 말고, 여러분을 돌아보아 여러분의 회심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고, 여러분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재앙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어떤 것을 하려고 한다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라. 만일 하나님의 이 요구를 거절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요청을 받아 주시며 죽음의 시간과 심판의 날에, 또는 아주 어려울 때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라. 여러분이 지금 탐욕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제 죽음과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보다 더 가까이 갔을 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마주칠 것이다. 그때 여러분은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 주고 있는 이 메시지를 더욱 두려움 속에서 집중해서 듣게 될 것이다.

younskulee@hotmail.com

연합감리교회 전국서 5,321개 교회 탈퇴 결의



연합감리교회 2019년 총회

미국 최대 연합감리교단(이하 UMC)을 탈퇴하는 교회들과 탈퇴를 결의한 교회가 5,321개로 UMC 탈퇴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UMC 콜로라도주 연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연회 산하 한인 교회인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비롯한 38개 교회가 교단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교단의 성(性)과 관련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교단 탈퇴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북일리노이연회의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네이퍼빌연합감리교회, 남부시카고연합감리교회 등 3곳이 탈퇴를 결정했다. 일리노이에서 가장 큰 한인 교회인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는 지난 4월 교단 탈퇴를 결정하자 UMC는 담임목사(김광태)를 보직 해임했다. 이는 최근 교단의 동성결혼 수용

정책에 반발, 탈퇴하려는 LA 지역 한인 감리교회들의 목회자를 해고한 것과 동일하다. 재산권을 가진 UMC는 탈퇴를 결정한 한인 교회들에 계속해서 탈퇴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는 건물 모기지 잔액을 포함해 360만 달러, 네이퍼빌연합감리교회에는 탈퇴 비용으로 192만 달러가 청구된 상황이다. 남부시카고연합감리교회는 탈퇴 조건으로 200만 달러를 교단에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반면, 교단 탈퇴를 부결한 교회들도 있다. 호놀룰루 지역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는 탈퇴안을 두고 최근 특별교인총회를 진행했으나 세계교인 중 2/3의 동의를 얻지 못해 탈퇴안이 부결됐다. LA연합감리교회의 경우에도 최근 교인 투표를 진행했지만, 교단 탈퇴안이 부결

됐다. 안성주 장로는 “교단 탈퇴가 부결되면서 이에 동조하지 않는 교인 20여명이 현재 따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교단탈퇴 이슈가 본격화된 후 서부지역 교회에서는 교단탈퇴가 어려워지자 성경적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자 하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전통적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옮겨가거나 새로 교회를 창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UMC에 따르면 교단의 성경책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 2022년 이후 현재까지 교단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무려 5321개다. 이는 지난 2019년(16개), 2020년(48개), 2021년(114개)까지 교단 탈퇴를 결정한 교회가 200개 미만인 것을 고려하면 그만큼 분열 양상이 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계에서는 이번 이슈를 지난

2014년 발생했던 ‘제2의 미국장로교단(PCUSA) 사태’로 보고 있다. 당시 전국 최대 장로교단인 PCUSA에서도 동성결혼 수용 정책에 반발, 한인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번 이슈는 성소수자 정책 수용 여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교단을 탈퇴할 경우 교회 건물 재산권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UMC 역시 PCUSA와 마찬가지로 교단이 재산권을 갖고 있다. 교회가 탈퇴하려면 교단의 승인, 또는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UMC는 지역 연회마다 탈퇴 규정을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텍사스를 비롯한 보수적 성향의 교회들이 속한 연회는 GMC를 비롯한 보수적인 성향의 교단으로 옮기기 위해 UMC를 탈퇴하는데 있어서 크게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반면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서부 칼텍연회의 경우 탈퇴 규정을 매우 까다롭게 하여 아무조건없이 교회를 떠나지 않은 이상 UMC에 남아있어야 할 상황이다. 인디애나연회 존 롬페리스 목사는 “UMC를 떠나려는 자들은 감리교 자체를 떠나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감리교를 계속 이어가려 할 뿐”이라며 “올해가 지나기 전 더 많은 감리교회가 UMC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기사판

퀸즈장로교회, 2023 전교인 여름 수련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2023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이것이 행복이라오”라는 주제로 7월 4-5일(화, 수), 9일(주일)에 걸쳐 열린다. 강사로 “행복”, “은혜”, “감사” 등 다수의 CCM 찬양을 작곡한 손경민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장소: 퀸즈장로교회 본당
▲문의: 718-886-4040

뉴욕센트럴교회, 독립기념일 페스티벌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독립기념일 페스티벌을 7월 2일(주일) 오후 6시부터 개최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하며 카니발 게임과 콘서트, 볼록놀이 등 볼거리와 저녁 식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문의: 516-387-9940

유영교회, 2023 소리엘과 함께하는 이웃초청 Love Together Concert

뉴저지 유영교회(담임 장병근 목사)는 2023 소리엘과 함께하는 이웃초청 Love Together Concert를 7월 8일(토) 저녁 7시에 개최한다. 장소: 유영교회 397 Commercial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문의: 201-753-0088

미드웨스트대학 37주년 기념 콘서트 뉴욕 링컨 센터에서 개최

중국 대도시 콘서트 및 캐나다, 미국, 한국에서 국제 콘서트 개최 예정

미드웨스트대학(총장 제임스 송) 37주년 콘서트가 뉴욕 링컨 센터에서 5월 31일(수) 오후 7시에 열렸다. 미드웨스트에서 2023년도에 음악 박사학위를 받은 중국 동문 중에는 중국국립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3명과 교수등 8명이 받았다. 이번 콘서트는 올해에 학위를 받은 동문들과 전 한국 국립대학교 여성교수협의회 회장, 현 한국 국립대학교 교수, 세계클라시음악협회 수석 부회장, 한국의 음대교수, 현재 재학 중인 중국의 최고 소프라노 성악가(국립대 교수) 등이 출연했다.



본 콘서트에 유엔사무총장,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Rishi Sunak (리시 수낙 영국총리), 스페인 총리 등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고, 음악회 시작전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가 축사를 했으며, 미국민주당 전국위원회 부의장, 뉴욕주의회 의원들, 뉴욕시의원들, 특별히 중국 최고의 대학교로 알려진 북경대학교 예술대학 학장과 캐나다 토론토 Toronto School of Music Canada 총장 부부, Northwest National University 중국국립대학교음악대학 학장 등이 참석하여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Music & Arts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뉴욕 주정부

의회 (New York State Assembly)와 New York City 의회에서 제임스 송 총장에게 어워드 를 수여했고 미드웨스트대학에서는 주 뉴욕 중국 총영사에게 Global Leadership Award 를 수여했다. 미드웨스트대학은 미국, 캐나다, 중국, 한국의 최고 음악가들이 출연하는 국제 콘서트와 국제 콩쿨을 통해 인재를 발굴하고 세계무대에 진출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2023년 가을부터 중국 대도시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고 이어 캐나다, 미국, 한국 등지에서 Midwest International Concert가 열리게 되며 2024년부터는 음악 영재 발굴을 위해 국제 콩쿨도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미드웨스트대학)

뉴욕교협 청소년센터, 2023 청소년 할렐루아 대회

“All About Jesus”

뉴욕교협 청소년센터(대표 최호섭 목사)는 2023 청소년 할렐루아 대회를 6월23일(금) 오후 7시, 24일(토) 오후 5시 이틀 간 “All About Jesus”라는 주제로 후러싱세일교회에서 개최했다.

드루 현(Drew Hyun - Hope Midtown 교회) 목사는 첫째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사람을 부르신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찾으신다”며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고 성장시키며,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가깝게 되기를 원하시고 일하신다”고 전했다.

둘째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

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분을 거부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며 “주님을 따를 때 삶이 항상 쉬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움과 장애로 인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한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 뉴욕교협 청소년센터)



뉴욕교협 2023 청소년 할렐루아 대회를 마친 후 사진촬영을 했다

늘기쁜교회, 엘살바도르 선교 후원 음악회

“선교에 대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늘기쁜교회(담임 김홍석 목사)는 엘살바도르 선교 후원을 위한 음악회를 6월25일(주일) 오후 5시 본교회에서 개최했다.

김홍석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에 있다”며 “선교에 대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팬데믹으로 몇 년 동안 중단되었던 음악회를 열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Gerard G.J.(ARPC 전 노회장)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음악회는 1부 독창, 독주, 듀엣, 중창 2부는 합창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이휘운(바이올린) ‘Amazing Grace’, 오지선(호른) ‘광야를 떠나서’, 박동국(색소폰) ‘축복하노라’ 3중주 ‘내 주의 은혜 강가로’의 악기 연주, 김인식 & 이주현 ‘시편23편’ ‘나를 통하여’, 이희정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남성중장단 ‘평화의 기도’ ‘주는 내 피난처’의 찬양을 들려 줬다.

2부는 관악기, 현악기 등 다양한 악기로 구성된 조이플 찬

양대의 연주 후 합창마을의 찬조출연으로 찬양의 열기를 더했다. 이어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으니 주 찬양소리가 온 땅에 넘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한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이 있었다.

마지막 무대는 모든 출연진들이 ‘거룩한 성’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환호성으로 무대를 장식했으며 방직각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원로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늘기쁜교회는 7월2일부터 7월8일까지 엘살바도르의 엘쿠코(Elcucu) 지역으로 단기선교를 준비하고 있다. 선교 사역은 안경사역, 어린이사역, 찬양사역, 의료사역으로 섬길 예정이다.

김중욱 선교팀장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사랑의 백성이며,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다”며 “떨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순종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현숙 기자)



엘살바도르 선교 후원 음악회 후 사진촬영을 했다



하랑예찬 집회 중 신나는 찬양과 율동을 하는 어린이들

퀸즈장로교회, 2023 하랑예찬 10주년 찬양집회

“When He Saw The Children”

어린이 찬양집회인 ‘2023 하랑예찬’ 찬양집회가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교육부 특별활동위원회(담당 전진영 전도사, 교육부 담당 차평화 목사) 주최로 6월 24일(토) 저녁 6시에 열렸다.

하랑예찬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찬양”의 줄임말로써 어린이들이 모여 예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어린이 기독교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된 사역이다. 퀸즈장로교회 소속 6세-10세 사이 어린이들이 Senior(초등부)와 Junior(유년부) 나뉘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 드리는 기도와 훈련을 계속해 왔다.

이번 하랑예찬 집회는 10주

년 기념성회로 열려 그동안 하랑예찬을 후원한 퀸즈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사역 스텝진들이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많은 크리스천 문화가 사라져 가는 이 시대에 다음세대인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독교 문화가 더욱 풍성해 지고 활발해 지기를 소망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집회에는 특별히 퀸즈한인교회 어린이 합창단인 Good Sprout 합창단이 특별 찬양으로 이번 집회에 함께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집회는 김성국 목사가 “When He Saw The Children(마태복음 21:15-16)”을 주제로 설교했으며 이어 어린이들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모든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며 다양하고, 신나는 찬양과 율동의 시간을 가졌다.

모든 찬양 집회 후 퀸즈장로교회 교육부 담당 차평화 목사의 인도 가운데 다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을 참성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며 차평화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재상 기자)



2023년 뉴욕선교대회와 할렐루아 뉴욕복음화대회 제 2차 준비기도회 마친 후 사진촬영 했다

‘겸손’ ‘온유’ ‘관용’ ‘오래 참음’으로 각자의 담을 무너뜨려야

2023년 뉴욕선교대회와 할렐루아 뉴욕복음화대회 제 2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협(회장 이준성 목사)은 6월27일(화) 오전 10시30분 뉴욕실로암교회(담임 조대형 목사)에서 2023 뉴욕선교대회 및 할렐루아 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한 제 2차 준비기도회를 개최했다.

뉴욕교협 회장 이준성 목사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라며 “뉴욕선교대회와 할렐루아 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해 매일 저녁 10-10기도회(저녁 10시10분 기도회)를 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경열 목사(선교준비위원장)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기도 김진건 장로(그리스도의 교회), 설교 이광삼 목사(한인동산장로교회 담임), 특송 할렐루아 어린이 대회 교사팀, 헌금 기도 Kevin Lee(협력위원)로 진행됐다.

이광삼 목사는 ‘함께 지어가는 교회 (엡 2:19-22)’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의 막힌 담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무셨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 속에서 그 담을 다시 쌓고 있다. ‘겸손’ ‘온유’ ‘관용’ ‘오래 참음’으로 우리 각자의 담을 무너뜨려 축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협,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져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합심기도는 2023 뉴욕선교대회 및 할렐루아 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해서 박이스라엘 목사(희년준비위원장), 정숙자 목사(기획위원), 김광섭 목사(협력위원)의 순으로 인도했다. 1부 예배와 합심기도는 조대형 목사(실로암교회 담임) 축도로 마쳤다.

2부 순서는 박태규 목사(교협 부회장)의 사회, 유승례 목사 기도, 김경열 목사(선교대회 준비위원장)의 뉴욕선교대회 보고, 박태규 목사(할렐루아준비위원장) 할렐루아 뉴욕복음화대회 보고, 임지윤 목사(유년분과위원장) 할렐루아 어린이 복음화 대회 보고로 진행됐다.

김경열 목사(선교대회준비위원장)는 강사 류영렬 목사를 소개한 후 이번에 초창할 선교사에 대해 “몇 십 년 동안 선교지에서 사역한 선교사를 초청했다”며 “공산권, 이슬람권, 오세아니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등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알차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태규 목사(할렐루아준비위원장)는 “할렐루아 대회는 뉴욕의 가장 큰 전도를 위한 전통”이라며 “이번 할렐루아 대회의 키포인트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있고 특히 교회를 잘 모르는 자들을 초청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초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지윤 목사(유년분과위원장)는 할렐루아 어린이복음화대회를 위해 함께 섬기는 교사로 김광섭 목사, 권영주 목사, 최화순 전도사를 소개했다.

김홍배 목사(서기)의 광고, 김복묵 목사(증경회장의 폐회 및 오찬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3차 준비기도회는 7월11일(화) 뉴욕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있을 예정이다. (홍현숙 기자)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 천지창조 공연 중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 12주년 맞이 링컨센터 “천지창조” 공연

튀르키예, 브라질,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등 선교지 후원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단장 윤다이나나 권사)은 12주년을 맞아 “천지창조”라는 주제로 6월 18일 주일 오후 6시에 링컨센터 데이비드 게펜 홀에서 공연을 개최했다. 공연은 1장 천지창조, 2장 십자가의 고난, 3장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니, 4장 감사의 노래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 외에 뉴욕실버미션합창단, 프레이즈 그라운드 합창단, 정혜선 한국전통예술원, 그리고 각 개인 연주자 및 보컬 등이 출연했다.

단장 윤다이나나 권사는 “저의 마음과 온 몸으로 주님께 찬양드리는데 이 공연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많은 감격스러운 일이 있기를 소원한다”고 했다. 전 단장이자 무

대감독인 최윤자 권사는 “2012년 선원의 공연속에서 우리의 문화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약속하심에 순종하여 준비해 왔던 수많은 시간이 있었다”고 돌아보았다.

특히 이번 공연 수익금은 뉴욕과 뉴저지미알장선교단이 동역하는 브라질과 방글라데시 선교사들, 튀르키예 지진피해 어린이(GCF), 볼리비아 선교사 등을 도왔다.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은 무용감독 최윤자 권사가 2011년 시작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뉴욕과 뉴저지에서 295회의 몸으로 찬양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해 왔다. 2023년에는 단장이었던 최윤자 권사가 무용감독이 되고, 윤다이나나 권사가 단장이 되었다. (정라: 김재상 기자)

밀알 2023 서부지단 연합 캠프 성황리에 열려

예배와 성찬, 세족식 각종 장기자랑이 이어진 행복축제

2023년 밀알 서부지단 연합 사랑의 캠프가 지난 6월 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2박3일 동안 캄스테이트 롱비치 캠퍼스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완전 대면으로 열린 올해 사랑의 캠프는 남가주와 북가주, 캐나다 밴쿠버 밀알 가족들과 더불어 ANC은누리교회 GM과 청년 트랙팀, 샌디에고 등에서 약 300명의 장애인 참가자들과 자원봉사자, 스태프 등이 참석해 캄스테이트 롱비치 캠퍼스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 및 교제를 나누며 여러 다양한 놀이를 즐겼다. 특히 이번 캠프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라는 요한계시록 19:7 말씀을 중심으로 “Fiesta”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캠프 첫날은 심상은 목사(OC 교협회장, 남가주밀알선교단 부이사장)의 인도로 개회예배를 드리고 모든 참가자들이 함

께 참여하는 세족식, 성찬식이 거행됐다. 둘째 날은 참가자들을 성인팀과 아동팀으로 나누어 ‘오징어게임’을 비롯한 각종 레크리에이션과 수영, 장기자랑 등이 이어졌으며 롱비치 해변으로 산책을 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작년 10월 장애인사역 세미나와 가족초청캠프를 진행했던 멕시코 후아레스 ‘센트로비다교회’의 빠오 올리바스 담임목사를 비롯한 사역자들도 사랑의 캠프에 참가해 함께 라틴 문화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 저녁에는 히스패닉 뮤지션들이 연주하는 경쾌한 라틴음악에 맞춰 모든 참가자들이 신나는 댄스 파티를 벌이며 이번 캠프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했다.

마지막 날인 24일엔 특별 공연과 함께 기도와 나눔의 시간을 가진 후 올리바스 목사가 인도하는 폐회예배를 끝으로 2023년도 사랑의 캠프가 막을 내렸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성남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마친후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마에스트로 금난새와 함께한 성남의 밤음악회

마에스트로 금난새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성남의 밤 음악회가 25일(주일) 오후 5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성남시가 주최하고 풀러턴시가 주관하고 은혜한인교회가 후원하여 열렸다. 6.25 한국전쟁 발발 73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 그리고 성남시와 풀러턴시가 MOU를 맺은 기념으로 열린 이날 음악회는 첫 번째 무대는 조르주 비제의 카르멘 하이라이트를 성남시향 금난새 마에스트로의 곡해설과 함께 연주가 되었으며 그의 유머러스한 곡

해설로 관객들은 웃음을 짓기도 하며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음악회가 진행되었으며 메조소프라노 백재은과 테너 허영훈이 무대에 올라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인터미션을 가진 후 열린 두번째 무대는 피아니스트 찰리 알브라이트가 조시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를 성남시향과 협연했다. 이날 연주회는 애국가를 함께 부른 뒤 마쳤다. 한편 본 음악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이 참석했다.

(박준호 기자)



2023 사랑의캠프1

제27회 에피포도예술상 수상자 6명 선정

안호원, 박억중, 박득희, 조미나, 서용선, 정정숙씨

에피포도예술과문학(대표 백승철 목사)이 주최하는 제27회 에피포도예술상 수상자 6명이 결정됐다. 수상자는 한국에서 5명, 미주에서 1명이 선정됐다. 수상자와 심사평은 다음과 같다.

△안호원 시인(한국. 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국제펜클럽 이사)의 시집 <귀의>가 선정되었다. 안호원 시인은 작품에서 인간의 실존을 삶으로 투영해서 본질로 돌아가야 할 세계를 담백한 시어로 보편적 정서에 담아 연결하고 있다.

△박억중 시인(한국. 한세대학교 교수. 국제펜클럽 회원)의 “상항(외 3작품)”은 에피포도문학상 시 부문 신인상으로 언어를 아끼고 조탁하는 능력이 작품에서 빛 보였다.

△박득희 시인(한국. 서울문학 부회장)은 에피포도문학상 시부문 신인상으로 “그리움(외 3작품)”이 선정되었는데 인간의 정서를 녹여 서정시의 기본을 채워가는 솜씨가 눈에 띄었다.

△조미나 시인(한국.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원. WMU 졸업. 시전동인)은 에피포도문학상 시부문 신인상으로 “이불(외 3작품)”은 사물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눈썰미로 인간의 정서를 녹여내는 시적 발상이 참신하였다.

△서용선 작가(한국. 스카이병원 원장. 시인. 수필가)는 자연풍경을 담은 작품으로 에피포도 포도그레픽 어워드를 수상하게 되었다. 앵글의 각도와 사물의 공간, 시간, 빛의 흐름을 절묘하게 조화시키고 있다.

△정정숙 시인(미국.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코원퍼시픽 LA 회장. 미주기독교문인협회 회장 역임)은 이번 회에 개설한 감상평설 부문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로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감상평설>은 평론으로 가기 위한 중간 지점의 글 형태를 말한다. 논리

적 전개와 객관적 시각을 다루는 능력이 빛 보였다.

시상식은 10월 경 한국과 미국에서 수상 작품집 출판기념회와 동시에 진행하며 이번 제 14회 에피포도문집에는 제8회 세계한인기독교문인협회에서 주최했던 독후감 응모 수상자 중 이윤진(LA. 최우수상), 한익승(NJ. 우수상), 문지혜(CA. 장려상) 작품도 수록된다.

비영리 단체인 에피포도예술과문학은 1995년 10월 2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백승철 대표(시인. 사모하는교회 담임)에 의해 시작된 단체로 매년 4월 30일에 마감하는 작품을 공모하고 있다. 에피포도는 헬라어로 ‘사랑하다. 사모하다. 그리워하다’의 뜻을 담고 있다. 에피포도예술과문학에 관한 문의는 714-907-7430 / www.epipodo.com 으로 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김은주 교수, ‘탈진을 긍정하라’ 출판 기념회

7월 3일 오전 10시 미주장로회 신학교에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더불어 선교학을 교수하고 있는 김은주 교수(미주장신대학교)가 <탈진을 긍정하라>를 출간하고 7월 3일 오전 10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탈진을 긍정하라>는 미주장신대학교 선교학 철학박사 논문문을 바탕으로 쓴 책으로, 선교사의 탈진이 지닌 다양한 함의를 선교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가이드북이다. 본서는 탈진을 선교학적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한국 교회의 선교가 좀 더 건강해지길 바라며, 선교사의 중도 탈락으로 말미암은 불필요한 손실이 최소화되길 바라며 집필한 책이다.

선교사 자신뿐만 아니라, 선교사 전인케어에 관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필독서이다. 김은주 교수는 선교 현장에서 다양한 사역 경험을 하였고, 전문인 선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 “선교학적 관점에서 본 선교사 탈진에 관한 비평적 통찰”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Ph.D.)를 받았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더불어 선교학을 교수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T.562.926.1023 / F. 562.926.1025 / office@pts.edu 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미주장신대학교)



보블리스선교합창단이 찬양하고 있다

보블리스 선교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연주회 되길”

보블리스 선교합창단(단장 유영애, 지휘 김철이 목사) 제6회 정기연주회가 24일(토) 오후 6시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렸다. 유영애 단장의 인사말과 김지원 목사(승리장로교회 담임) 기도로 시작된 이날 연주회는 ‘영화롭도다 깨어나라’, ‘감사’, ‘주 너를 지키시고 복주시리’, ‘주와 같이 갈 가는 것’ 등의 곡을 불렀으며 소프라노 정원혜와 LA 칸투스가 찬조 출연하여 이날 연주회를 빛내주었다. 이날 연주회는 구경모 목사(한빛장로교회 담임) 축도로 마쳤다. 유영애 단장은 “찬양을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이 연주회를 통하여 크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한다”며 “오늘 연주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랍

고 특별한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철이 목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승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자 제6회 정기연주회를 마련했다”며 “오늘 연주회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세계선교교회 장학생선발

세계선교교회(담임 김창섭 목사)는 매년 가을 바자회로 기금을 모금하여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남가주 거주자 및 남가주 소재의 정규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학생이 지원 할 수 있으며, 모집 분야는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학생, 성적 우수자, 신학생, 목회자(전도사) 자녀 및 선교사 자녀이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세계선교교회 홈페이지 www.wmcla.com (community-교회소식란)을 참조하면 된다.

▲ 문의: 풀리 유 전도사 323-788-8757, pjncsyoony@yahoo.com

평강교회 제1회 평강블레스콘서트

평강교회(담임 송금관 목사)는 제1회 평강블레스콘서트를 7월8일(토) 오후 5시에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본교회에서 처음 갖는 행사이다. 출연자는 소프라노 김미경, 김현주, 메조소프라노 조지영, 테너 오우영, 백동휘, 바리톤 채홍성, 라 루체 챔버 오케스트라(지휘 전창환)이다.

▲ 문의: (213)393-9136

찬양사역자 안종군 전도사 초청 찬양집회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는 찬양사역자 안종군 전도사 초청 찬양집회를 7월7일(금) 오후 8시에 갖는다.

▲ 문의: (808)536-7244

나성영락교회 이단대책 세미나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교회창립 50주년 기념 이단대책세미나를 7월7일(금)부터 9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일정과 강사는 7일(금) 오후 7시30분 신현욱 목사(전 신천지 교육장, 현 예방합동 이단상담소장, 구리초대교회 담임), 8일(토) 오후 6시 권남규 목사(전 신천지 금천교회 담임, 현 예방합동 이단전문 상담사, 부산이음교회 담임), 9일(주일) 1-3부예배 양형주 목사(대전서노회 이단상담소장, 현 장신대 객원교수, 대전도안교회 담임)이다.

▲ 문의: (323)227-1400

세미한교회 임선주 선교사 찬양과 간증집회

세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는 버스킹 찬양전도사 임선주 선교사의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집회를 7월 7일(금) 오후 7시에 캐롤튼 캠퍼스 본당에서 갖는다.

▲ 문의: (972)446-0178

주님의영광교회 김태훈 선교사 간증집회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김태훈 선교사 간증집회를 30일(금)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 문의: (213)749-4500

여디디야교회 ‘중독, 치유와 회복’ 세미나


캘리포니아주 놀워에 자리한 여디디야교회(13820 Studebaker Rd. Norwalk, CA)에서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중독, 치유와 회복’ 세미나가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유근희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중독 사역 전문가들의 주제 강연과 중독자 가정 회복을 다룬 드라마 상영, 패널 토의, 그리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세미나의 구체적 일정은 6월 30일(금요일)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7월 1일(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 문의: (909)702-7561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맛을 잃은 교회를 살릴 첫 단추, 설교”

한국선교신학회-세썬새 KOREA 공동포럼 개최

소금과 빛의 속성을 잃어버린 교회를 다시 짜고 밝게 하려면 설교가 먼저 선교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연세중앙교회(윤석전 목사)에서 열린 2023 제4차 한국선교신학회(회장 유근재 목사) 세썬새 KOREA(대표 송창근 목사) 공동포럼에서다. 성도가 지역사회의 책임을 인식하며 교회의 테두리를 넘어 공동체와 그 속의 이웃에게 다가가게 하는 첫 단추가 바로 선교적 설교라는 것.

권호(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선교적 설교는 교회 안

의 성도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을 뛰어넘어 교회 밖의 세상 속에서 복음을 말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증언하도록 한다”며 선교적 설교의 유익을 설명했다. 권 교수는 “교회가 선교적 설교를 실천하며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때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린다”며 ‘선교적 설교의 결과 교회가 가진 재정과 인력으로 지역 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피고 치유한 사례’로 서울 송파구 좋은나무교회(이강우 목사)를 소개했다. 권 교수는 “좋은나무교회는 선

교적 설교를 통해 ‘주는 것이 복’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속해 전하고 실천하는 교회”라며 △지역사회 어린이와 엄마들을 위한 캠프 사역 △2013년 시작해 매월 진행되는 족보촌 도시락·복음·청소 사역 △농어촌 지역 어린이 전도를 위한 방방(트램펄린) 사역 △대학생들을 위해 교수 연구실을 개방하는 아미(AMY·Acts for Million Youth) 사역 등 좋은나무교회의 활동들을 소개했다.

좋은나무교회 이강우 목사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캄보디아 중국 등 방방이 설치된 후 교회학교가 없던 곳에 교회학교가 세워지고 어린이들이 부흥한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있다”며 “우리교회의 방방 사역이 세대대전의 좋은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권 교수는 “선교적 설교는 본질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적용이 강한 설교다. 본질은 인류를 사랑하고 이 땅 위에 오셔서 구속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강조”라며 “이때 필요한 것이 메시지 접근성 강화다. 이를 통해 성도에게는 세상으로 나아가 할 소명에 대한 강조를, 교회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수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현직 경찰 100여명이 선교사들 위해 나섰다

지난해 6월 천안아산주님의교회에서 창단

경찰해외선교봉사단(해선단·단장 성보경 계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교회(지춘경 목사)에서 창단 1주년을 맞아 기도회와 선교 보고회를 개최했다. 세계 167개국에 파송된 2만2000여명 선교사를 위해 경찰이 나선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복음화 사역을 감당

하는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고 지원하고자 전국 기독교 경찰관이 뜻을 모아 지난해 6월 해선단을 조직했다.

지난 1년간 해선단은 6명의 선교사들을 정기 후원했다. 태국, 필리핀, 인도, 말라위, 캄보디아, 라오스 등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법률지원과 후원금, 전도물품, 생활용품 등을 지원했다. 이외에 신학대와 지방 경찰청, 법무법인 로고스, 아시아미션, 교단총회 선교국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해선단은 현역 및 은퇴 기독교 경찰관 1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창단은 단장인 성보경 경찰수사연구원 재정관리계장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성 단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한국으로 잠시 돌아온 선교사들을 교회에서 만나면서 해선단 조직을 결심했다.

성보경 단장은 “지난 1년간 열심히 달려왔다. 앞으로 경찰 해외선교봉사단이 더 부흥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원은 한달에 1만원 이상 해선단 법인 통장에 기부할 수 있다. 모아진 후원금은 단체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에게 지급된다. 또 2024년 4월을 목표로 단기선교를 준비하고 있다.



자살·이혼 OECD 1위 불명예...

교회, 생명지키는 ‘방과제’ 역할 나서야

충격적인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에 이어 학교 폭력으로 인한 초등생 투신과 유튜브의 자살 생방송까지... 생명을 대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8년 동안 자살률 1위 뿐 아니라 임신중절수술(낙태) 1위라는 부끄러운 타이틀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다. 날로 팽배해지는 생명경시 풍조 속에서 한국교회가 생명존중 메시지 선포와 캠페인, 교육 등의 사역을 통해 죽음의 문화를 생명 문화로 바꾸는 ‘방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생명경시 현상의 원인으로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의 부재와 개인주의를 꼽았다.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생명경시 풍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하나님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인본주의와 개인주의를 꼽을 수 있다”며 “사회에 이런 사상이 팽배하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사라지고 자기 생명을 끊는 것에 대해서도 하찮게 여기게 된다”고 꼬집었다. 흥순철 성신생명윤리연구소장은 “

태아는 우리랑 똑같은 존재”라며 “배 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난 아기, 자라나는 소아들 등은 모두 연속 선상에 있다”며 “태아와 같은 생명을 바라보는 사회의 왜곡된 시선이 생명경시 풍조를 부추기는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교회와 성도들이 일상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생명 존중 활동들도 제시됐다. 외로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을 강조한 오 대표는 “교회는 입양이나 위탁 홍보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분리된 보육원 아동들과의 1대1 결연 사역을 하면서 이들에게 정서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와우임신상담지원센터 대표 김길수 목사는 “목회자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냐 낙태 등의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비박스’ 사역을 하는 이종락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지 않도록 절박한 이들을 위한 상담 사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학대 최초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 라인’

“한국교회 차원의 AI 활용 위한 논의를 본격화 되길...”

대학 캠퍼스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대한 대응이 한창인 가운데 아신대학교(총장 정홍열)가 22일 국내 신학대로는 처음으로 ‘교수·학습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올초 국내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챗GPT를 활용한 강의, 무단복제 방지 지침, 윤리강령 등을 마련했지만 신학대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가이드 라인이 발표되기는 처음이다.

이수인 ACTS 교육혁신센터장은 “학습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기독교 인재상을 바탕으로 기술적, 윤리적 활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발표된 가이드 라인에는 5가지 핵심 키

워드(정직과 책임성, 지성, 다양성, 창의성, 공공성)에 기독교적 인재상이 담긴 생성형 AI 활용 방안이 제시돼 있다. 가이드 라인의 첫 줄에서 ‘ACTS의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발표했다. 올초 국내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챗GPT를 활용한 강의, 무단복제 방지 지침, 윤리강령 등을 마련했지만 신학대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가이드 라인이 발표되기는 처음이다.

학습 제시 방안은 교수자와 학습자로 나눠 구성했다. 교수자에게는 ‘생성형 AI가 제공한 정보나 내용을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게 할 것’ ‘현장 프로젝트, 구두 발표, 인

터뷰 및 설문조사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도입해 공정성을 확립할 것’ 등이 권고됐다. 학습자에게는 ‘생성형 AI로 얻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것’ ‘생성형 AI가 대학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개선된 교육 과정과 평가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 등이 반영됐다. 앞서 대우에 나선 국내외 대학들은 학생들이 챗GPT로 대체할 수 없는 탐구 정신을 발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한 대학은 최근 트렌드와 관련한 인터뷰와 조사 결과를 과제물에 반영하도록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UC) 샌디에이고 공대의 경우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토론 문화에서 유래한 구술시험을 도입하고 최근 3년간 7000여건의 시험을 실시한 결과 부정행위가 줄고 학업 성취도가 올라갔다는 연구 내용을 국립과학재단(NSF)에 발표하기도 했다. 이 센터장은 “신학대의 경우 지식의 함양이나 부정행위 방지 수준에 그치지 않고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이 가이드 라인에 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작업했다”며 “ACTS의 가이드 라인이 신학대는 물론 한국교회가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훈 목사, 대만서 코로나 이후 최대 집회 인도

대만 신티엔싱타오교회 주최 ‘파이어 콘퍼런스’ ... 1만여명 참석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가 코로나19 이후 대만 기독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를 인도하며 현지 복음화를 꾀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 목사가 지난 22일과 23일 대만 타이베이 화평체육관에서 열린 초교파 성령 축제 ‘파이어 콘퍼런스’(Fire Conference)에 주 강사로 초청돼 순복음의 영성과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을 전파했다고 25일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따르면 ‘기도 X 부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는 대만 청·장년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이 목사는 이날 ‘믿음으로 전진하라’란 제목으로 설교하며 참석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절대 긍정의 책’인 성경을 통해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

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10년 이내에 대만 인구의 3분의 1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부흥을 이끌어 갈 주인공이다. 대만 복음화를 이뤄 13억 중국과 온 아시아가 변화되도록 기도하자”고 덧붙였다.

이 목사의 설교 후 참석자들은 대만의 복음화를 위해, 특히 13억 중국인과 전 세계에 거주하는 중화권의 복음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신티엔싱타오교회의 장마오 목사 따르면 20년 전만 해도 2%에 불과했던 대만의 복음화율은 현재 8~10%에 달한다. 파이어 콘퍼런스 역시 홍콩, 뉴질랜드, 호주 등 9개국의 중화권 지역으로 퍼져나가 그 복음의 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피종진 목사 7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향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토)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08) 주회 : 신문방송 TV
3(월) 오후 한일선교사모임 (원장 이영금 목사) 주회 : 한미연합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이귀범 목사) 010-2238-3999

4(화) 오후 서울 삼각산 선지기도원 (원장 김승자 목사)
주회 : 한국부흥사회 (대표회장 정민철 목사) 010-3224-2345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주회 : 한국기독교부흥사단체 총연합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상임총재 한영훈 목사, 대표대회장 김우경 목사)

6(목)~7(금) 전인 위대한목회자 영성원 (원장 윤재민 목사) 010-6352-0691
10(월) 오후 세계 기독교성지도자 선교협의회 (대표교단 장상 전 국무총리, 이사장 피종진 목사)

11(화) 오전 지.선.협. 국가구국기도회, 선민중앙교회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12(수) 오후 서울 창동 주성령교회 (최수희 목사) 010-8775-7479
17(월) 저녁 서울 임마누엘교회 (최옥순 목사) 010-2213-4448
18(화) 오후 서울 감남순교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19(수) 오후 광주 반석교회 (고관영 목사) 010-2391-3001
19(수) 저녁 파주 엘리아 기도원 (김일문 원장) 주관 : 한국교회연합 부흥사회 (총재 서재은 목사) 010-7142-2548

20(금) 오후 충주 금식기도원 (원장 고충만 목사) 010-3709-4968
24(월)~26(수) Mission Association MT
27(목) 오전~후 서울 신학교 (학장 김충환 목사) 주회 : World 기독교 총연합회 (이사장 정진화) 010-7567-8291
28(금) 서울감남순교교회 (김사광 목사) 010-8331-3431
31(월) 아산 새벽별교회, 미래로 국제선교회 (대표 김수아 목사) 010-9082-9030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s.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한국세계선교협의회·한인세계선교사회·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현장 중심 네트워크 선교 집중” 공동 결의

국내의 선교 연합체들이 선교사가 견인하는 선교가 아닌 ‘현지·현지인 중심의 선교’에 중점을 두기로 다짐했다. 또 재정적 기반에 둔 선교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한 선교에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는 20일 서울 동작구 KWMA 세미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선교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 선교단체가) 선교지 문화를 이해하는 일에 소홀했다. 오히려 후원교회의 선교 철학을 더 중요시했다”며 “앞으로는 ‘현장 중심의 선교’를 펼쳐도록 노력하겠다”고 계획했다.

이 같은 결의는 지난 13일부터 나흘간 개최된 제8차 NCOWE(엔코위·세계선교전략회의)에서 나온 선언문을 발전시켰다는 다짐이다. 세 단체는 한국교회와 선교사에게 “물질과 외적인 선교를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교회 개척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현지인 리더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쓰자”고 요청했다. 강대홍(가운데) KWMA 사무총장은 “100년 전 조선에 선교사가 왔을 때와 상황이 다르다”며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교회를 볼 수 있다. 선교사가 하고 싶은 사역보다는 현지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교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교의 창 (218)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대한 사람이 길이 보전해야 할 한반도

올해는 6.25가 발발한 지 73년째이다. 남북 분단의 갈등과 대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언제쯤 한반도에 하나 됨의 봄날이 오게 될까?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가는데 흑여 이리다가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가? 불안감이 없지 않다. 지 나간 현대사를 돌아보면 남쪽의 집권 세력에 따라 북쪽의 공산 세력을 상대하는 시각이 극명하게 달랐다. 보수 정권에서는 북한을 타협(妥協)보다는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며 문을 걸어 잠갔다. 진보정권은 타도(打倒)보다는 타협쪽에 무게를 두며 어떻게든 손을 잡아 보려고 노력했다. 이렇듯 저렇듯 결과적으로는 모두 맹탕이 되고 말았다. 실패민과 이산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상실감이 크다. 오호 통재(嗚呼痛哉)라! 지난 50년, 남북 관계를 통해 우리가 절실히 깨달은 것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시 127:1a) 말씀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여리고 성같이 견고한 진(陣)인 휴전선의 벽을 허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허리 잘린 한반도에 성령의 회오리바람(Whirlwind)을 불어오게 할 수 있을까?

대륙과 해양 세력의 교차 지역
한반도는 폐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위로는 대륙에 아래

로는 대양에 막혀 있다. 북쪽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잠재력이 큰 중국이 있다. 가장 땅이 크고 군사력이 강한 러시아도 있다. 동남쪽으로는 세계를 리드하며 가장 힘이 센 미국이 있다. 탄탄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일본도 있다.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4대 열강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이다. 대륙과 대양의 관문에 있는 한반도는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받기 쉬운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실제로 지난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은 이 세력들로부터 약 1,000번에 걸쳐 크고 작은 침략을 받아 왔다. 이에 반해 한반도를 개방적이고 팽창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야말로 대륙과 대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최적이 된다. 관광 인원과 물류가 교차하면 경제적 이권을 톡톡히 챙길 수 있다. 나아가 문화적으로 본다면 한반도는 대륙의 동양 문화와 대양의 서양 문화를 융합시켜 제3의 문화를 창조해 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는 마치 유럽에서 그리스 반도를 떠올리게 된다. 그 땅은 남유럽 발칸 반도 끝에 있다. 3편이 바다로서 한반도와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서구 문명의 시원이라 할 수 있는 헬레니즘 문화를 꽃 피웠다. 실제로 한

반도도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을 동시에 견인해 낼 수 있는 개방성과 포용성으로 독창적인 한류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현대사에서 한류가 아시아, 중남미, 이슬람권, 서구권을 넘어 전 세계 구석진 곳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 말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韓半島)의 지정학적 위치는 약점이면서 강점이기도 하다.

평화 번영 통일의 당위성
왜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 번영과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 첫째 민족적 의미이다. 세계 24,000 종족 230개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만이 분단 가운데 있다. 세상에서 가장 불

쌍사나운 것은 형제간에 다투며 반목하는 것이다. 우리는 6.25 사변을 겪으며 그 아픔과 상흔이 한이 되어 가슴앓이로 자리하고 있다. 일천만 이산가족의 비통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피는 물보다 진하며 모든 이념을 초월한다. 둘째 경제적 의미이다. 경제규모 이론상 인구가 8천만 명이 되면 자체 내수시장만으로도 이윤이 창출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 대박을 언급했던 신창민 박사는 분단 및 대치 비용이 역으로 생산성의 에너지로 바뀌지게 된다는 것이다. Buy Korea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10년 동안 매년 11.25%의 획기적 경제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는 해양과 대륙의 물류 허브(hub)로서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 시너지적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말 한 마리는 4톤의 무게를 끌 수 있다. 그런데 두 마리가 함께 끌면 8톤이 아니라 22톤의 무게를 끌 수 있다. 시너지 효과란 이처럼 상승작용을 나타낸다. 남과 북은 상반적인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략이 필요한 대한민국
4대 열강 속에서 실타래처럼 얽힌 남북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인가?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와 삼국지에 나타난 책사들의 지략이 필요하다. 이는 마치 산을 등정할 때 보듯 곳곳에 천 길 낭떠러지 같은 크레바스(crevasse)의 위험이 있기 마련이다. 우선 당사자인 대북(對北) 관계이다. 북한은 동족이라 할지라도 이념과 체제와 생각이 다르다. 인내 가운데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쉬운 것부터 행동으로 보이며 순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조급함은 금물이다. 이벤트성 만남도 절제해야 한다. 가슴을 열고 동족애로 나아가면 모든 장벽들은 하나씩 허물어질 것이다. 또 한 축은 대외(對外)관계이다.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임에도 우리끼리만 풀 수 없는 한계 속에 있다. 주변국들은 우리에게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관계 속에 있다. 현실은 냉엄하다.

자기들끼리 싸우다 망하면 소가 웃게 된다. 남북통일 전에 우리는 남남 갈등의 산을 넘어야 한다. 국론이 분열되면 외적으로 힘을 표출할 수 없다.
맺음 말
“우리의 소원은 통일/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동요는 안석주 작사와 그의 아들인 안병원 작곡으로 1947년에 발표되었다. 통일의 노래는 한국방송의 삼일절 특집 라디오 드라마의 주제곡으로 사용된 바 있으며 예전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늘 불렀었다. 현대 지금은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통일 열망에 대한 민족적 현주소가 이 노래로 잘 드러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아예 통일을 반대하기도 한다. 저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민족적 과업을 등한시할 수 없다. 비록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것은 평화통일이요 복음통일이다. 어떤

한민족은 단기 4356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배달의 겨레이다. 남, 북한은 지난 75년간 극한 이념, 체제, 군사적 대결을 펼쳐 왔다. 우리는 평화, 번영, 통일의 길로 나아가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야 한다.

다. 남은 고급 인력과 기술과 자금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값싼 노동력과 많은 지하자원 및 관광 명소가 많다. 여러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선교적 의미이다.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의 지하교회도 드러나고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의 일천만 크리스천과 중국의 1억 크리스천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자연스럽게 왕래할 수 있다. 이렇게 두 나라의 교회가 연합하면 서로의 약점을 메꿀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 된다. 이는 예루살렘을 향한 영적인 주력부대로서 히말라야 산 같이 높기만 한 이슬람권과 힌두권을 거뜬히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고 했다. 저들은 남북통일의 물꼬를 걸고 환영한다 해도 내심은 이해타산(利害打算)의 계산이 앞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4대 열강의 체면과 입장을 고려하되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접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내(對內) 관계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대개 국가가 망하는 것은 외적인 힘보다 내적인 분열에 의해서였다. 유대인은 진보와 보수가 코피터지게 싸우다가도 대외 적에 나타나면 정쟁을 멈추고 하나로 똘똘 뭉친다. 중국인도 그러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국공합작이 일어나 일본에 대한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외적인 위협이 있음에도 끝까지

경우에라도 한반도에 다시금 포화(砲火)가 있어서는 안 된다. 통일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곳에 임한다. 성경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다. 전 세계 한민족 크리스천들은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본분에 충실하며 조국 대한민국과 함께 호흡하고 날마다 여호와께 탄원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꿈은 꾸듯이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지 않을까? 한반도 허리를 휘감고 있는 용의 세력을 떨쳐 낸 자유로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그려 보면서!

jrson007@hanmail.net

C. S. 루이스의 생애 산책 (5)

초임 교수 시절

루이스는 1925년 8월 옥스퍼드 모들린 칼리지 펠로가 되었습니다. 이 ‘펠로’는 ‘개별지도 교수’ 혹은 ‘글쓰기 개인지도 교수’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펠로는 학생이 준비해온 에세이를 소리 내어 읽게 한 후 비평과 토론으로 지도하는 교수입니다. 요즘 교육 시스템으로 보면 튜터(Tutor)와 흡사합니다. 당시 영국 교육은 글을 읽고 쓰는 능력 함양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충실한 대학 생활처럼 충실하게 학생을 지도했습니다. 루이스는 가혹하고 요구사항이 많은 개별지도 교수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게으르고 감수성이 부족한 학생들을 참지 못해서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성실했던 루이스 대학생활을 아는 사람은 루이스의 펠로 생활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사건은 루이스 아버지인 알버트 루이스의 사망입니다. 원래 루이스는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

는데 막내 루이스는 아버지를 홀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큰 아들 와니가 중국 상해에 근무하고 있어서 대학에 재직했던 루이스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루이스 자신도 한동안 아버지께 불효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루이스는 아버지가 떠난 옛 집 리틀리 정리를 위해 중국 상해에 근무하던 형 와니에게 추억이 있는 집을 팔아야 하는 아픔을 고백했습니다. 곧 세 사람 즉, 루이스, 무어 부인 그리고 와니가 함께 투자해서 집(킬른스)을 샀습니다. 무어 부인이 소유권을 갖고 루이스와 와니는 영구거주권을 가졌습니다.
형 와니는 1932년 12월에 제대했습니다. 루이스는 형과 함께 킬른스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무어 부인이 있었지만, 루이스는 형 와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형과 함께 사는 것은 루이스에게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무어 부인도 루이스에게 중요했지만, 형 와니는 루이스의 평생의 친구,

후원자, 비서였습니다. 평생 타자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루이스 대신 형이 타이핑을 했습니다.
루이스가 형과 함께 지낸 것은 루이스와 형 두 사람에게 유익했습니다. 특히 루이스는 정신적인 안정감도 얻게 되고 형의 도움으로 자신의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루이스의 왕성한 저자 활동과 강의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든든한 형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루이스가 만난 중요한 인물이 J.R.R. 톨킨입니다. 루이스의 삶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많지만, 부모, 형, 무어 부인 그리고 친구 J.R.R. 톨킨이 루이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톨킨스는 루이스가 영문학을 토의하는 그룹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들 두 교수의 상호 장래 학문과 저작 활동을 고양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루이스와 톨킨 두 사람이 주축이 되어 소규모 문학 토론 모임인 ‘인클링스(Inklings)’를

결성했습니다. 인클링스의 문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의 토론과 논평에서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나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같은 20세기 판타지 문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인클링스는 이들의 문학 활동뿐만 아니라 삶의 전 분야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클링스를 통해 루이스가 신앙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는 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루이스와 톨킨이 각각 아들을 참가하게 했던 것도 주목해야 할 사항입니다.
루이스의 스승이요 친구였던 톨킨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루이스는 초임 교수 생활을 충분히 누렸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간간하지만 성실한 교수로 인정받았고 학교 당국이 그의 교수 역량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그의 탁월한 기억력과 청중 설득력은 간간히 주어진 강의 기회로 그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초임 교수 루이스는 말과 글에 탁월함을 보였습니다.
루이스의 삶과 연구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친 대학 초임 교수 시절은 만만치 않아서였습니다. 이미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악화되거나 승화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루이스를 살피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라고 하는 잠언 말씀이 생각납니다.
Kangtg1207@gmail.com

매일가정예배

월 복음의 시작 (마1:18-25) 찬 29장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를 통하여 요셉과 마리아에게 고지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하신 대로 신약을 열자마자 엘리야의 심령을 입고 올 세례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샌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요한이 먼저 등장하고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약속대로 주의 백성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예수, 즉 "구원"으로 오십니다. 임마누엘, "사켄" 즉 "함께 하심"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 구주가 나셨다 (눅 1:39-2:7) 찬 112장

오늘 우리가 입을 말씀은 예수님 탄생의 장면과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하여 예수님까지 내려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절은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구유는 짐승들의 밥통입니다. 죄로 인하여 짐승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삶과 피를 다 내어주시는 '짐승들

의 밥(양식)'이 되어서 내려 오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결정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 역사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을 기준(AD, 주후)으로 우리 삶의 시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 기준은 '주후 몇 년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기준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기준이심을 인정하며 삽시다.

수 첫 질문 (마2:1-2) 찬 95장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질문합니다. 당시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의 입을 통하여 헤롯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 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가치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우리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찾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첫 질문은 범죄한 인간들이 구원자를 찾는 질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해야 할 질문이며, 이 질문에 대답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이 질문앞에 반드시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금도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헤롯 앞에서 "유대인의 왕"을 당당하게 질문하고 찾았던 동방박사들처럼 말입니다.

또한 이 질문은 신약의 첫 질문입니다. 구약의 첫 질문은 "아담아 네가 어디있느냐?"였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목 들리십니까? (눅3:7-9) 찬 407장

세례 요한은 신약에 등장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구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즉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심판의 메시지 위에 예수님은 구원과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가 폭로 되어야 하고 그 폭로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 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앞에 정직하게 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인 됨을 인하여 애통하기 바랍니다. 심령을 찢는 심정으로 이 메시지를 붙들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금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마3:16-17) 찬 536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 해답이 레위기 1장에 있는데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번제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번제의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 흠 없는 제물의 머리에 한제자가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흠 없는 제물에게 뒤집어씌웁니다. 그때 죄와 의로움이 교차하여 전가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쓰셔야 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뒤집어쓰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뒤집어쓰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세례를 받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받으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토 예수님 승리는 내 승리 (마4:8-10) 찬 543장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세 가지로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마귀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받았던 유혹이 바로 그 세 가지였습니다. 결국 예

수님은 첫 사람 아담의 실패로 인하여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 첫 아담이 받은 그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고, 이기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선악과 앞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마귀,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동일한 시험을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시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다고 다 해서도 안 되고, 보고 싶다고 다 봐서도 안 됩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독교교육 (29)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계획의 종류

기독교교육 행정은 계획, 조직, 실행, 평가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첫단계인 계획에는 실행계획, 단기계획,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실행계획은 사역을 진행하면서 순간순간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세우는 계획입니다. 단기계획은 사역의 진보를 평가하고 발전을 위해 연차적으로 세우는 계획입니다. 장기계획은 5년 또는 10년 후를 내다보며 세우는 계획입니다. 모든 계획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역팀의 구성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이상을 서로 나눌 때 구성원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 공통적인 비전이 자리잡게 됩니다.

단기계획이나 실행계획보다 장기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회가 사명 달성을 위해 일치단결하여 나아가려고 하면 모든 사역 분야가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장기계획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계획은 단기계획이나 실행계획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장기계획이 다른 계획들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철학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능력을 가진 구성원으로 하여금 장기계획사역팀 구성원들이 나눈 이상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정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역팀은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비전을 정리하는 데는 철학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구성원이 좋습니다. 세부사항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고 기독교교육 사역의 미래를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정리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계획은 다음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계획사역팀은 공통적인 이상을 축약한 표어를 만들어 회중이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물론 이상을 현실화시킬 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사역팀과 회중을 통해 일하십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이상의 현실화에 헌신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의 헌신이 상승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회중이 하나의 이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공통적인 이상을 간략하게 표현한 표어는 모두가 같은 목표를 기억하게 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기계획은 회중에 큰 그림을 제시합니다. 모든 회중이 각자 자신을 큰 그림의 일부로 볼 때 통일된 목적이 성립됩니다.

단기계획은 장기계획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므로 매년 단기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단기계획은 교회가 한 해 동안 장기적인 목표에 얼마나 접근했는지를 평가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발표함으로써 교회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방향을 잃지 않게 합니다. 장기계획사역팀에 의해 포괄적인 장기계획이 수립되면, 교회가 장기계획을 향해 움직여 가도록 매년 계획, 조직, 실행, 평가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년 단위의 단기계획이 없으면 매년 같은 프로그램과 행사를 반복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교회의 리더들은 예산사역팀과 상의하여 연간계획을 세웁니다.

큰 그림에서 벗어나 독립된 개별결정은 장래의 계획에 영향을 끼칩니다.

신중한 계획이 없으면 교회의 구성요소들의 사역이 중복되어 서로 경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교육에 있어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독교교육 담당자의 몫입니다. 어떤 문제들은 여러 부서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회의 리더들과 상의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담당자가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교육은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필요 하므로 담당자는 봉사자들을 모집, 훈련, 교육할 계획을 수시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유급사역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을 과도하게 자주 계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봉사자들을 위한 실행계획을 세울 때는 그들의 생활과 직업 활동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그들을 돕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협동적인 계획이 없으면 교회의 구성요소들이 교회와의 연관성을 잃어버리고 제각기 자체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므로써 교회의 자원과 에너지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장기계획은 최선의 전략과 더불어 교회가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때 우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교육을 담당하는 리더는 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 장기계획사역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구성원들로 사역팀을 구성하여, 사역팀이 생각과 신념과 관점에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사람과 사물과 사건을 동일하게 보고 동일하게 이해하고 동일하게 대한다면,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로 이루어질 것이고(계 7:9-10), 그것이 현재 교회의 모습에 반영되어야 하고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위한 장기계획사역팀도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독교교육을 담당하는 리더는 구성원들이 공통적인 비전을 갖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리더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사용하여 구성원들이 마음속에 있는 이상을 서로 나누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교육을 위한 교회의 인적, 물질적 자원이 무한하다고 가정할 때, 교육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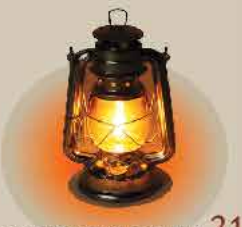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란장 안내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 편지

AIM(Africa Inland Mission) Korea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 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새번역)

여수MTI를 방문하여 선교 사님들과 선교 후보생들에게 저에게 있었던 시련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후, "선교 사님의 설교를 통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내를 천국으로 환송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위로 중 첫 번째 꼭지, '우리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채플 후, 두 클래스에 들어가 훈련에 참여하는 선교사님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 참 신선하고 선교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Q: 선교사가 꼭 실천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요?

A: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 경건 생활을 생명처럼 유지하고, 사역을 위해서 영어 진보에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Q: 어떻게 선교지를 정해야 하나요?

A: 남은 선교과업을 생각하며 미전도전도종족(UPGs)을 중심으로 사역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Q: 단기 선교는 어디로 가야 좋은가요?

A: 선교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역지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기간의 사역보다는 선교를 배우는 것이 더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Q: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 사역에 어느 정도 참여해야 하나요?

A: 사역지에 따라 사역에 참



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 자체보다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피선교지인들에게 보여 주는 일이 더 중요 한 것 같습니다.

Q: 신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A: 성경적인 지식을 잘 습득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좀더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영성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 하고, 평생, 이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도록 신 학교에서 철저히 영성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목회자가 평생 경계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돈과 권력과 섹스입니다.

AIM Korea 사무실이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사무실 매도를 위해 계약까지 했었으나 그 계약을 파기하신 하나님께서

최순남 이사님을 통해 사무실을 깨끗이 단장해 주셨습니다. 와서, 한 번 보세요! 사무실 주소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16번길 20, 노블리치오피스텔 A동 501호. 환영합니다!

2023년 1학기 동안, 칼빈 대학교에서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에 모여 AIM과 선교사님, 아프리카와 한국과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선교를 알게 되었고, 어떻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지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라는 많은 학우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칼빈대학교의 배려로 신대원 201호를 사용할 수 있었고, 학교에서 두 번에 걸쳐 200,000원의 동아리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기도제목: 1. 아프리카 선교사를 발굴하고 파송 할 수 있도록

2. 선교적 도움이 필요한 회를 만날 수 있도록

3. 2025년까지 알제리 선교팀을 보낼 수 있도록 알제리 선교팀의 팀장을 허락하소서. 알제리 선교팀과 동역하실 선교사들을 보내 주소서 알제리 선교에 헌신할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을 보내 주소서. 2024년 1월에 계획한 알제리 비전 여행을 허락해 주소서

4. 해외에서 6월 중순 한 주간 있을 사역자 컨퍼런스를 통해 장래 사역에 대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위로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5. 자녀들(시온가정, 복음가정)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의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의 선교헌금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강령권 선교사 드림 john.kang@aimint.org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중국

▲ 종족명 미쯔 왕 종족

▲ 인구 173,000 명

▲ 종족의 종교 상황 민속 종교 99.5%, 복음화율 0.5%

▲ 복음 매체 성경 변경 요청됨, 기타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파일 BC 2세기 진 왕조가 많은 종족들을 남부 관동 지역으로 쫓아냈을 때 관동 지역의 서쪽 일대로 이동해 지금까지 농경 생활을 하며 살고 있다. 정령 및 조상 숭배가 혼합된 종교 형태를 띠고 악령들의 공격을 두려워한다. 19세기 복음이 전해졌으나 여전히 큰 변화는 없다.

▲ 기도제목

- 1. 미쯔 왕족 사람들이 그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며 창조주를 향한 영적 갈급함이 일어나도록
2. 미쯔 왕족과 다른 왕족 사람들의 관계가 화목케 되도록
3. 미쯔 왕족으로 성경이 번역되고 복음이 전해져 정령에 감혀있는 이들이 참 자유를 얻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Worldwide Church' and 'Hawaii & North America Region'. Includes church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 for various congregations like '동부(NY,NJ)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etc.

TGC, 선교에 왜 도시가 중요한가

“도시는 이제 6대륙 모두에게 열린 미래의 새로운 선교지이다”

도시는 선교에 중요하다.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기 때문이다. 아주 최근까지 인류는 거의 다 시골에서 살았다. 1910년까지만 해도 세계 인구의 10퍼센트만 도시에 살았다. 그러나 오늘날 도시 인구는 50퍼센트 이상이며, 이번 세기 중반이 되면 75퍼센트까지 늘어날 수 있다. 폴 로머(Paul Romer)는 늑대처럼 무리를 지어 생활하던 인간이 개미나 흰개미처럼 살게 되어서라며, 도시화라는 인간 사회의 급진적인 변화를 설명한다.

도시화의 변화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난다. 아프리카는 이제 다른 어떤 대륙보다 빠르게 도시화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2050년까지 세계 인구 증가의 절반인 약 12억 명이 아프리카에 있을 것이라고 한다.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21퍼센트가 아프리카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다. 중국과 인도도 도시화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도시 빈민가에 살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의 인구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 선교학자 레이 바키(Ray Bakke)는 말한다 “더 이상 정글의 초가지붕이 아니다. 도시는 이제 6대륙 모두에게 열린 미래의 새로운 선교지이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우리가

지구상 모든 종족 그룹과 위치에 도달하도록 강조하지만, 인구 통계는 도시 선교에 더 치중하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1억 명의 새로운 도시 거주자에 대해 1만 명당 교회가 하나가 되는 비율을 달성하려면, 1만 개의 새로운 도시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 이것은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수만 개의 새로운 도시 교회를 개척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럼 미국은 어떤가?

미국과 관련해서는 도시화가 다르게 보인다. 인구 조사국의 분류를 따르면, 미국은 1920년에 이미 도시 인구 50퍼센트에 이르렀고, 오늘날에는 약 80퍼센트에 이르는 사람이 도시 거주자이다. 그러나 “80퍼센트 도시 인구”라는 수치에는 오히려 여지가 있다. 관계 기관은 2,500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모든 곳을 도시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가수 존 멜렌캠프(John Mellencamp)가 부른 “작은 마을”(small town)의 전형인 인디애나주 세이모어에 사는 누군가는 이제 기술적으로 도시 거주자가 되었다.

또한 “도시”라는 단어에 대부분 사람은 다가가 주택 및 복합 용도 개발이 이뤄지는 고밀도 지역을 생각한다. 또한, 대

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격자 형태의 도로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도로가 배치된 곳을 떠올린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징이 아니다. 뉴욕시,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보스턴, 시애틀, 워싱턴, 볼티모어, 마이애미 등 전통적으로 도시화된 곳의 2020년 인구를 다 합해도 약 2천만 명에 불과하다. 내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에서도 선교를 위해 전통적인 도시 지역이 여전히 중요한가? 그렇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

도시에서 사는 3천만에서 4천만 명의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 루이빌이나 버밍엄 같은 작은 도시든, 보스턴이나 시

점이다. 모든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 그곳에 있다. 베이 지역의 기술, 뉴욕의 금융, LA의 엔터테인먼트, 보스턴의 생명 공학 및 엘리트 고등 교육, 워싱턴의 연방 정부는 이러한 해안 센터를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위치 중 하나로 만든다. 구글, 디즈니, 뉴욕타임스, 국방부, 하버드 같은 기관에서 내린 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



시는 인디애나폴리스 같은 도시에 대학 도시까지 합쳐야 미국의 도시 인구는 3, 4천만 정도로 늘어난다. 그러나 그건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0-15퍼센트에 불과하다. 자동차를 타는 대부분 미국인은 거대한 패턴으로 성장한 교외에서 산다.

애틀 같은 큰 도시이든, 도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2. 도시에 핵심 기관들이 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정부를 통제하는 주요 도시는 핵심 거

유로 도시는 전략적이다. 복음이 핵심 기관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싶다면, 교회가 도시에 존재하고 또 견고해야만 한다.

3. 변화는 도시에서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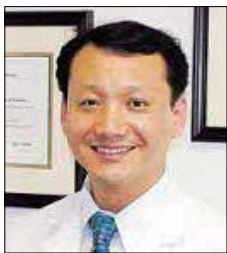
국가의 문화 형성 기관이 모

두 다 주요 도시 중심에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문화적 변화는 도시에서 먼저 발생한다. 펜실베이니아 역이 뉴욕에서 철거되었을 때, 전국에서 역사 보존 운동이 촉발했다. 현대 LGBT+인권 운동은 1969년 뉴욕의 스톤월 폭동으로 시작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일어나는 일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 비밀을 지키라는 말이 있지만, 뉴욕, 샌프란시스코 또는 LA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국 우리의 삶 속으로 파고들 것이다.

도시 교회는 일찍부터 문화적 변화에 노출된다. 이런 이유로 도시 교회는 종종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개발해 낸다. 도시 교회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또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굴복하더라도) 그들은 많은 교회에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공화당이 우세한 주(red-state)의 교외나 또는 작은 마을의 안락함에 빠져서 도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쉬울 수 있다. 그러나 비판보다는 그들이 어떤 압력을 받으면서 사역하고 있는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하는 힘이 곧 모든 곳에서 똑같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 사역이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의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하다. 인구 통계학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이유로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21세기 선교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과민성 대장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은 글자 그대로 장(소장과 대장)이 너무 민감해서 비정상적으로 수축하거나 때문에 복통을 호소하거나 설사나 변비를 유발하는 질환이

다. 이 병은 미국에서 가장 흔히 진단받는 위장관계 질환이고 감기 다음으로 흔한 병의 원인이다. 통계를 보면 전체 미국 인구의 약 10-20%가 이 병을 앓고 있으며 약 15%가 병원을

찾는다고 한다.

-연론계에 종사하는 30대 후반의 여성 임씨는 지난 3개월간 복통으로 고생해왔다. 과거에도 장이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지난 3개월 동안은 심한 복통과 변비 때문에 거의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어려웠다. 특히 업무로 인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는 왼쪽 아래쪽 복부의 통증이 더 심했다. 통증의 양상은 마치 쥐어짜는 듯했고 음식을 먹으면 더 심했다. 변비가 심하다기도 가끔 설사가 나기도 하는데 이때는 소량의 묽은 변이 자주 나온다. 또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각이 급해서 화장실에 가면 변이 잘 나오지 않고 대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한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다.

임 씨는 늘 복부에 가스가 차 있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잠을 자는 동안은 복부 증상이 사라졌다. 임씨는 과거의 특별한 질병을 앓은 병력은 없었지만 항상 장이 약하다고 생각했고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를 앞둘 때마다 장에 탈이 나곤했다. 이

때 항상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서 나타났다. 또 월경을 할 때 통증이 몹시 심해서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담배와 술은 마시지 않고 연론계에서 일하는 특성상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항상 많은 편이었다. 임씨를 검진했다. 혈액이나

맥박은 모두 정상이었었고 촉진할 때 복부 아래쪽에 통증이 있었다. 혈액검사와 대변 검사도 정상이었다. 임씨는 병력을 바탕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 이 병의 원인은 음식 알레르기나 감염 등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원인이 규명된

필요할 수도 있고 드물게 장 내 시경을 해야 하는 수도 있다.

치료는 먼저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평소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변비가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면 장 운동을 증가시켜주는 세로토닌 길

복통, 설사, 변비 나타나

바는 없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과민성 대장 증상을 악화시키는 기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진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병력이지만 염증성 장 질환 등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혈액검사나 대변검사가

한계를 쓸 수 있고 설사가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장 운동을 감소시켜주는 항콜린성 약물을 사용한다. 다만 이 약물을 과잉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한다.

▲문의:213-383-9388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뉴욕 라이트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

KPCB New York Light Pastoral Mentoring Seminar

베이사이드장로교회(베장)는 1991년도에 뉴욕 베이사이드 지역에 2 가정으로 개척되어 32주년을 맞고 있는 교회입니다. 베장은 제자훈련을 통하여 말씀에 기초로 세워진 교회로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베장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32년 동안 교회에서 끊이지 않고 제자훈련을 해오고 있으며 그 열매로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 교회를 이루어왔고 코로나19 기간에도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제자훈련을 실시하여 도미니카의 한 대학의 정식과목으로 채택되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니카에서도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 비영리 제자훈련 단체(Siete Ovejas y Un Pastor)를 설립하고 중남미를 향하여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베장은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위한 전도 프로그램이 발달하여 한국에서의 이민이 거의 전무한 이 시대에도 아이들과 그들의 젊은 부모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젊은 교회입니다. 이번에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를 개최하는 목적은 그동안 베장이 걸어왔던 길을 나눔으로 위기의 시기에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베장은 그동안 매해 교회 결산의 남은 절반을 어려운 교회를 돕는데 활용해 왔으나 이번 해부터는 보다 폭 넓게 자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게 되어 제 1회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내용

1. 개척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단계 설명
2.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양육프로그램
3.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정착프로그램
4.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시대에 맞는 전도프로그램
5. 목회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목회 철학
6.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
7. 목회자 위기 관리
8. 짧은 뉴욕 Tour (강의 진행에 따라 시간 변경 가능)

일시 | 2023년 9월 11일(월)-14일(목)
장소 | 베이사이드장로교회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예약문의 | 718 229 0858, 646 361 8992 정도영 행정목사
E-MAIL | nymentoringseminar@gmail.com

대상 |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로서 55세 이하 되는 분 (선착순 50명)

미국내 타주에서 오시는 목회자의 경우 등록비 숙박비 및 항공료(economy class 기준) 전액을 제공합니다 (중영서 제출과 세미나 전 강의 참석 필수). 단 세미나 후의 모든 개인 일정은 교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뉴욕/뉴저지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에게는 등록비, 식사비 무료이며 세미나 전 강의 참석을 약속하는 분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뉴저지에서 오시는 목회자들은 모든 세미나 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필요시 숙박을 제공합니다.

모든 비행기 예약은 9월 11일 월요일 뉴욕시간 오후 2시 전에 뉴욕 케네디 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참여하셔야 교통편의가 제공되며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일정은 9월 14일 목요일 오후 6시 이후에 출발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강사 : 이종식 목사
강사 소개 :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Philadelphia, PA. (M.Div.)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Jackson, MS. (D.Min. 과정 수료)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Honorary Ph.D.
도미니카 공화국 UNEV 대학교수
미주합동 신학교 총장 역임
CRTS Theological Seminary 분교장 역임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 총회장 역임
칼넷(CAL-NET) 미주대표
도미니카 공화국 제자훈련 단체 (Siete Ovejas y Un Pastor)총재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목사 1991~Present



대한예수교장로회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목양훈련원